〔論文〕

燕岐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

—문양분석과 제작시기 시도—

姜 敬 淑
(忠北大學校)

차 례

Ⅰ. 머 리 말
Ⅱ. 松亭里 가마구조
Ⅲ. 松亭里 대접문양 분석
Ⅳ. 松亭里 대접문양 특징
Ⅴ. 松亭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
Ⅵ. 맺 음 말

Ⅰ. 머 리 말

충남 연기군 전동면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의해 1990년 12월 1일~30일에 걸쳐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한 긴급발굴이 이루어진 곳이다.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는 이처럼 긴급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에 퇴적층과 작업장을 찾지못하고 가마구조만이 불완전하게 확인되었으며 도편의 수습도 퇴적층이 파괴되어 표토로부터의 수습만이 가능하였다.[1]

연기군은 공주군과 더불어 충청남도 분청사기를 대표하며 그 내용과 양에 있어서 독자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다. 연기군에는 쌍류리, 청라리, 신대리, 기룡리, 송성리, 松亭里, 달전리, 금사리 등 분청사기 가마터만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고[2] 그 밖에도 17~19세기에 이르는 백자 가마터들이 분포되어 있다.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는 비록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연기지방의 특징을 보이며 나아가 충청도 분청사기 특징의 일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고서에 보고된 가마구조를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대접 도편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대접에 한정하였으며 방법은 대접 내·외 무늬를 중심으로 상감기법, 인화기법, 상감·인화 혼합기법 등 세 그룹으로 유형

1) 忠淸南道燕岐郡·高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公州大學校博物館, 1991. 『松亭里陶窯址』, 高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調査報告 第1輯.
2) 姜敬淑, 1986. 『粉靑沙器硏究』, 一志社, PP. 189~253.

분류하였고 다시 문양내용과 문양구도에 따라 가·나·다 계열로 재분류하고 다시 식으로 세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연구는 이미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陶水里의 분청사기 가마터 수습 대접도편으로 발표된 바 있었다.[3)]

그러므로 陶水里 분청사기의 연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다룬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의 분석은 경기도 광주 陶水里와 충청도 연기 松亭里 양 지역의 분청사기 특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松亭里의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양 지역의 비교를 더욱 의미있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의 방법은 경기도, 충청도 지방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도 가능하니 그 이유는 초기 분청사기 가마터가 한강 이남 전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기때문이다<지도 1>. 앞으로 동시대의 각 지방 분청사기의 특징을 하나씩 조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지역간의 성격을 비교하고자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으며 그 일환의 첫번째 연구가 陶水里와 松亭里의 비교 연구이다.

그러나 이 글의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두 지역 모두 퇴적층의 확인이 없는 수습품이라는 점과 둘째는 陶水里나 松亭里의 분청사기가 경기도와 충청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모두 경기도의 광주 지역과 충청도 연기 지역의 분청사기의 일면을 나타내는 점만은 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의 도자기 성격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제일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허락을 받아 발굴보고서와 수습도편을 마음데로 인용 또는 이용하였기때문에 이 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II. 松亭里 가마구조

가마는 서북이 가파른 산으로 둘려 있고 남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표고 약 150 m에 위치한다<그림 1>.

가마의 크기는 길이 12.48 m, 폭 2.5 m, 깊이 70 cm이고 가마의 축조방법은 벽면이 돌과 진흙을 이용하였으며 가마입구는 돌로서 설치하였다<그림 2>. 그러나 아궁이와 굴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가마의 내부정리도 못한채 발굴을 마무리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니 이는 여러가지 사정때문이었으므로 앞으로 재발굴을 기대해 본다.

토층의 구성상태를 밝히기 위해 4곳의 가마내부 단면과 가마 외부 좌측(아궁이쪽에서 볼 때) 단면을 조사하고 있다<그림 3>. 보고서의 토층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마 내부의 4곳의 단면은 위로부터 불에 탄 붉은 흙덩어리, 청갈색 부식토층, 황갈색 고운 부식토층, 명갈색(적

3) 姜敬淑, 1983.「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 試考－廣州陶水里 粉靑沙器窯址대접破片을 中心으로－」, 『梨大史苑』 20, 梨大史學會, pp. 1~30.

색포함) 부식토층, 암회갈색 등 모두 5층의 층위를 이루고 있어 가마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 앉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마 외부의 좌측 단면은 가마 내부와는 다른 이를테면 위로부터 밝은 갈색, 황갈색, 암갈색, 흑갈색의 사질토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역시 가마주변의 퇴적층임을 알 수 있다.[4]

이상의 보고서에 보고된 가마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종합해 관단해 볼때, 松亭里 분청사기가마는 길이 12.48 m, 폭 2.5 m의 돌과 흙으로 축조된 등요임을 알 수 있다.

III. 松亭里 대접 문양분석

대접의 문양분석은 대접내면의 중심문양대에 시문된 문양시문 기법에 의해 크게 3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문양의 내용에 따라 가·나·다 계열로 재분류 하였으며 그리고 문양배열을 몇단으로 했느냐에 의해 A·B·C·D식으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유형→계열→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면 도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I型 象嵌技法의 蓮唐草文

I型은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을 기본으로한 유형이다. I型은 다시 문양내용에 따라 I型가 연당초문 계열, 중심문양대의 연당초문이 생략되고 간략한 草花文이 중심문양대에 배치되는 I型나 초화문 계열, 중심문양대의 문양은 모두 생략되고 몇줄의 횡선문만이 상감기법으로 시문된 I型다 重圈文 계열로 재분류하였으니 I型 象嵌技法은 연당초문, 초문, 중권문의 3계열임을 보여준다.

1) I型가 연당초문 계열

I型가로 분류한 연당초문은 그 문양내용이 생략되어 가는데 따라 A·B식으로 세분하였다.

① I型가 A식〈그림 4·도편 1〉

대접내면의 문양구도가 3~4단으로 구성되고 중심문양대의 연당초문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시문된 경우이다. 도편 1을 보면 입술부분으로부터 초엽문대(파손), 연주문대, 연당초문대(중심문양대), 이중연관문대의 4단구도이고 외면은 평행곡선문이 촘촘히 상감되었다.

② I型가 B식〈그림 5·도편 2, 3, 4〉

내면 문양대가 생략되어 1단구성을 보이며 연당초문도 연꽃의 윤곽선만이 남고 당초문은 2~3줄 정도의 파도문(?)으로 메꾸어 넣고 있다. 평행곡선문이 시문되던 외면도 생략되어

4) 주 1) 앞보고서, p.9, Fig 3 土層實測圖

무문이다〈도편 2, 3〉 파도문으로 나타내던 당초문마저 생략되어 연꽃술의 핵심만 남으면서 연당초문은 문양으로서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도편 4〉.

2) Ⅰ型나 초화문 계열

초화문의 모양에 따라 A·B 식으로 세분하였다.

① Ⅰ型나 A 식〈그림 6·도편 5, 6〉

문양의 구획선을 위와 아래에 3~4 줄을 지저분하게 돌리고 1단 구성의 중심 문양 부위에는 간략한 초화문이 시문된 경우이다. 초화문은 그릇의 입술부분에 종속문으로 시문되던 초엽문이 중심문양대로 내려와 중심문양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연당초문에서 파도문으로 변형된 당초문양이 이처럼 草花文형식으로 남게 된 경우, 그리고 포류수금문의 일부가 초화문양으로 된것이 아닌지 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 여하튼 외면도 무문인 것으로 미루어 문양이 생략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草文으로 볼 수 있겠다.

② Ⅰ型나 B 식〈그림 7·도편 7〉

1단 구성의 중심문양대에는 한 포기의 풀포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문양 생략화의 과정에서 보이는 초화문의 예이고 외면은 무문이다.

3) Ⅰ型다 重圈文 계열

대접의 안과 밖에 2~4 줄의 횡선문만 돌린 종류인데 횡선문이 상·하에 있는 경우와 아래에만 있는 예가 있어 A·B로 다시 세분하였다.

① Ⅰ型다 A 식〈그림 8·도편 8, 9〉

횡선문이 내면 위, 아래에 있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외면에도 횡선문이 시문된 것이 있어 주목된다.

② Ⅰ型다 B 식〈그림 9·도편 10, 11, 12〉

횡선문이 내면의 위나 아래에 한 곳만 남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대접 외면이 무문인 것이 대부분이나〈도편 10, 11〉 횡선문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도편 12〉.

2. Ⅱ型 象嵌·印花技法의 蓮菊花文

Ⅱ型은 문양내용이나 문양 구도상 Ⅰ型 蓮唐草文의 테두리 안에 있으나 唐草文 대신에 印花技法의 花文이 낱개의 도장으로 시문된 경우를 Ⅱ型으로 분류하여 그룹지었는데 이 경우의 蓮花文은 반드시 흑·백 이중의 상감 선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Ⅱ型에는 문양의 포치는 같으나 蓮花의 종류가 아닌 이를테면 인동문 혹은 연화의 변형일지도 모르는 꽃이 배치된 종류도 Ⅱ型으로 포함시켜 가·나로 분류하였다.

1) II型가 연·국화문 계열

II型가는 흑백 이중의 상감기법으로 연꽃을 시문하고 나머지 여백의 당초문 자리에는 국화모양의 도장을 찍은 예인데 문양구도에 따라 다시 3식으로 세분된다.

① II型가 A식〈그림 10·도편 13, 14〉

내면은 3~4단 구도이고 외면은 1~2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를테면 입술로부터 초엽문(좀 흐트러진), 의미불명의 곡선문(14세기의 대접인 경우 봉황문이 시문되기도 했던 문양대), 중심문양대의 연·국화문, 가장 하단에 이중 연판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짜임새가 단정하고 비교적 전통적 분위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나 이미 상감기법의 당초문이 도장으로 바뀌고 있어 조선적인 분청사기의 특징이 엿 보인다. 외면도 내면 문양의 단정함과 같이 입술 부분에 도안화된 卍자문대 그리고 평행곡선문이 시문되었다〈도편 13〉. 또한 구연부가 파손되어 1단의 문양 내용은 알 수 없으나(초엽문으로 간주됨) 대체로 3단구도로 간주되는 도편 14는 중심문양대 안에는 연주문과 국화문이 포치되고 3단의 문양으로는 흑백상감의 연판문이 시문되고 있다. 외면은 평행곡선문이 거의 수직선으로 변하면서 짜임새가 흐트러지고 있다〈도편 14〉.

② II型가 B식〈그림 11·도편 15, 16, 17〉

내면은 2단구도이고 외면은 평행곡선문이 시문된 종류이다. 내면 입술부분에는 초엽문 그리고 중심문양대에는 상감의 연화문과 인화기법의 국화문이 중심인데, 이 중심문양대 안에 구획선 없이 여의두문이 혼재하는 경우〈도편 15, 16〉와 혹은 이중연판문〈도편 17〉이 혼재한 경우가 있어 결국 입술부분의 초엽문과 중심문양대 만으로 구성되는 2단 구성의 예가 II型가 B식이다.

③ II型가 C식〈그림 12·도편 18, 19〉

II型가 C식은 중심문양대 안에 혼재해 있던 여의두문이나 이중연판이 생략되고 상감기법의 연화문과 인화기법의 국화문만이 상·하 2~3줄의 문양구획의 횡선을 돌려 중심문양대 1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종류이다. 외면의 평행곡선문은 거의 직선으로 되어 무성의 하게 그어져 있다.

2) II型나 忍冬(?) 菊花文 계열

II型나는 II型가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열이나 꽃의 형태가 다른 종류이다. II型나 계열의 꽃은 忍冬文 같기도 하고 연꽃의 봉오리 같기도 하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살펴 온 I型가, I型나, II型가의 연꽃 모양과는 다른 모습의 종류들을 한데 묶어 II型나로 분류 하였다. 이를 다시 문양구도에 따라 A·B·C·D의 4식으로 세분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① II型나 A식〈그림 13·도편 20, 21, 22, 23〉

II型나 A식은 4단구도로 1단 초화문, 2단 연주문 혹은 무문, 3단 忍冬(?) 국화문, 4단 이중연판문이고 외면은 2단 구성으로 卍자문과 평행곡선문이다. 중심문양대의 忍冬(?)문은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의 특징으로 주목된다.

② II型나 B 식〈그림 14 · 도편 24, 25〉

II型나 B 식은 내면 3단구도로 중심문양대에 여의두문이 구획선 없이 함께 시문된 경우이다. 1단의 초엽문, 2단의 연주문은 갖추고 있고 외면은 「正陵銘대접」(뒤에서 언급)에 연원을 둔 복잡한 문양대가 흐트러진 상태로 시문된 것이 있는가 하면, 평행곡선문으로 생략된 경우를 보이고 있는 종류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또 내면 중심문양대의 忍冬(?)文과는 다른 특이한 흑백상감의 花文이 시문된 것은 II型나 A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나 일단 II型나 B 식으로 분류하였다〈도편 25〉.

③ II型나 C 식〈그림 15 · 도편 26〉

II型나 C 식은 내면 구도가 2단으로 연주문대가 생략되고 있고 외면은 역시 평행곡선문에서 변하여 평행직선문이 된 종류이다.

④ II型나 D 식〈그림 16 · 도편 27, 28, 29, 30〉

II型나 D 식은 내면문양이 1단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지 상감기법의 花文과 인화기법의 국화문만이 시문되고 있다. 花文의 종류는 忍冬文(?)〈도편 27〉, 인동문(?)이 해체된 모습〈도편 28, 29〉, 변형된 花文〈도편 30〉 등 다양한 花文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14세기의 전통인 연당초문 대접의 모습이 생략, 변형,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 III型 印花技法의 花文

III型은 대접내면 중심문양대에 인화기법만이 사용된 유형인데 내면 중심문양의 화문 종류에 따라 가(六角瓣文), 나(菊花文), 다(六圓文)로 재분류 하였다.

1) III型가 육각판문 계열

III型가는 중심문양 내용이 육각판문이며 내면 문양구도에 따라 A · B 식으로 세분한다.

① III型가 A 식〈그림 17 · 도편 31, 32, 33〉

III型가 A 식은 대접내면 문양대의 구성이 3단구도로서 1단 초엽문, 2단 육각판문, 3단 국화문 혹은 연판문이 시문되고 외면은 평행곡선문이 상감된 종류이다. 2단 중심문양대의 경우에도 육각판문 1줄과 상감기법의 파도문이 1줄 시문되는 과도기적인 흔적을 보이는 종류가 있고〈도편 31〉, 육각판문을 두줄 배열하여 안정감을 보이는 것이 있으며〈도편 32〉, 내 · 외면의 문양이 흐트러진 모습〈도편 33〉을 보이는 종류가 있다.

② III型가 B 식〈그림 18 · 도편 34, 35, 36〉

III型가 B 식은 내면 문양이 중심문양대만 남는 1단 구도의 형식으로 육각판문만을 사용한 종류이다.

2) III型나 국화문 계열

III型나는 내면 중심문양으로 국화문을 시문한 종류로서 대개가 1단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외면은 무문이다. 인화기법의 국화문 계열의 대접은 단순 생략되어가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상·하 문양 구획선의 횡선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시문되고 있어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중권문으로의 이행과정을 예견할 수 있다.

1단 구도의 국화 문양대를 중심으로 여러줄의 횡선문이 상·하에 배치되는 경우와 위에만 한 곳 배열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A·B식으로 세분하였다.

① III型나 A식<그림 19·도편 37, 38, 39>

III型나 A식은 1줄의 국화문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여러줄의 중권문을 돌린 경우이며 외면은 무문이다.

② III型나 B식<그림 20·도편 40, 41>

III型나 B식은 내면문양이 1단 구도이기는 하나 중심 문양대의 위치가 아래로 처져있고 여러줄의 횡선이 위에만 시문된 종류이다. 이때의 국화문은 지그재그로 배열했거나<도편 40>, 또는 연주문이 1줄 들어간 현상을 보이는 종류도 있다<도편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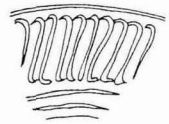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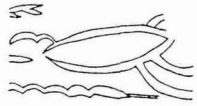
3) III型다 육원문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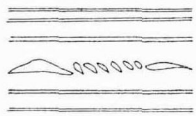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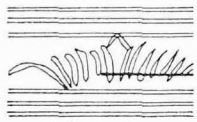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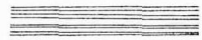
III型다는 내면이 1단 구도이고 외면은 무문으로 중심문양의 내용이 六圓文인 종류를 말하며 육각판문이나 국화문보다는 그 사용예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1·도편 42>

이상에서 살펴온 I·II·III型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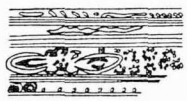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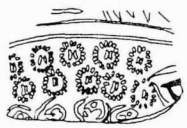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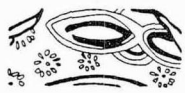
<표 1> 연기 松亭里 도편 유형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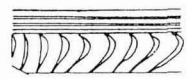
I型 상감기법의 蓮唐草文

계열	식	대접 내·외면 문양특징		
		구도	내 면	외 면
(가) 연당초문	A	3-4	연당초문	 평행곡선문
	B	1	 연과도문	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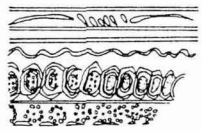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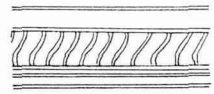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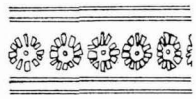
(나) 초화문	A	1	 초화문	무문
	B	1	 초화문	무문
(다) 중권문	A	상하	상하 횡선문	횡선문
	B	하	 하 횡선문	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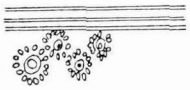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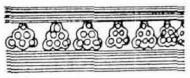
II型 상감·인화기법의 蓮菊花文

계열	식	대접 내·외면 문양특징		
		구도	내 면	외 면
(가) 연국화문	A	3-4	 연화문·국화문	卍자문·평행곡선문
	B	2	 국화문·여의두문	평행곡선문
	C	1	 연화국화문	평행사선문

(나) 인동국화문	A	4	인동국화문	卍자문 · 평행곡선문
	B	3	여의두문	평행곡선문
	C	2	인동국화문	평행직선문
	D	1	상감화문	 평행곡선문

III型 인화기법의 花文

계열	식	대접 내·외면 문양특징		
		구도	내 면	외 면
(가) 육각판문	A	3	 육각판문	 평행곡선문
	B	1	육각판문 · 상하 중권문	무문
(나) 국화문	A	1	 국화문 · 상하중권문	무문

	B	1	 국화문 · 상하 중권문	무문
(다) 육원문	C	1	 육원문 · 상하 중권문	무문

IV. 松亭里 대접문양 특징

III장에서 松亭里대접 내면문양을 자세히 분석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몇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겠으며 아울러 경기도 광주 陶水里 분청사기 대접문양과 비교하여 광주와 연기 지방의 공통적인 현상과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두 지역의 분청사기의 성격을 일부나마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대접문양의 특징

1) 대접내면 중심문양대 시문기법으로는 象嵌技法과 印花技法의 두 기법이 사용되었고

2) 대접내면 중심문양대의 문양내용은 상감기법이든 인화기법이든 간에 14세기에 유행하던 蓮唐草文에 기반을 두고 있다. 康津일대의 14세기 청자가마터로부터 수집된 대접에는 연당초문이 중심문양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었다.[5]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14세기 연당초문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편년자료로는 1365년 전후로 비정되는 「青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이하 「正陵銘대접」)〈그림 22〉이 있다. 「正陵銘대접」은 대접의 내·외면이 모두 흑백 상감기법으로서 그 잔영이 1420년경 까지 남아있으니 이러한 연당초문의 하한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粉青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이하 「恭安銘대접」)〈그림 23〉이 있다. 이와 같이 松亭里대접의 기본이 「正陵銘대접」 문양에 있기때문에 松亭里 분청사기는 고려의 전통위에 있다는 점이 파악된다. 그 예로는 松亭里 I型가 A식〈그림 4〉 내·외문양에서 볼 수 있다.

3) I型가 A식〈그림 4, 도편 1〉이 I型가 B식〈그림 5, 도편 2·3·4〉으로 생략 단순화 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상감기법의 蓮唐草文의 경우 연화문은 꽃이라는 형태만 남고 당초문은 파도문으로 변형되며 드디어는 蓮花와 唐草도 그 의미를 잃어가 형태 불명의 모

5) 海剛陶磁美術館 · 全羅南道 · 康津郡, 1992. 『康津의 青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第三册.

습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한 가마안에서 어떻게 문양이 변해가는가 하는 현상을 파악하게 한다.

4) 몇줄의 선만이 상감되는 重圈文 대접의 경우에는 중심문양대 안의 연당초문이 모두 생략되어 없어지고 문양대의 구획선 만이 최후까지 남아있는 경우라고 보겠다. 이처럼 無文으로 가려는 현상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松亭里 분청사기 경우에는 重圈文 마저도 없어진 無文대접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은 松亭里 가마의 하한연대를 설정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5)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의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사용한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내면 중심문양대의 4곳에 배치되는 연화문은 상감기법이 계속 사용되는 배경에 시문되는 상감기법의 당초문은 여러 모양의 꽃도장을 찍으면서 인화기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6) 14세기 고려 상감청자와의 전통과 새로이 등장하는 印花기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인화기법이 중심문양대로 진출하여 새로운 문양의 한 영역을 굳히기 시작하는 과정이 파악된다. 한편으로 蓮花文의 형태가 변형되어 가는 모습이 주목되며 몇몇 도편에서도 忍冬文 혹은 연화문의 변형이라고 보여지는 모양이 시문되어 주목된다.

7) 대접내면 중심문양대에서 상감기법의 연화문(때로는 인동문)은 아예 사라지고 菊花, 六角瓣文, 六圓文 등의 낱개 도장으로 2~1줄의 문양만 인화하여 결국 중심문양대는 1단 구성의 印花技法의 문양으로만 시문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8) 이상에서 본 I型(象嵌技法의 蓮唐草文), II型(象嵌·印花기법의 蓮菊花文), III型(印花기법의 花文) 등 세유형 모두가 3~4단 구도의 복잡한 양상으로부터 2단→1단으로 단순화되며 급기야는 문양 구획선만이 횡선문으로 돌려져 重圈文 대접이라는 종류를 형성하면서 문양이 생략되는 공통된 현상을 보인다.

9) 결국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는 상감기법의 蓮唐草文이라는 14세기 상감청자의 전통위에서 조선적인 분청사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가마라는 것이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상감·인화의 두 기법이 혼용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인화기법만이 전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더 이상의 변화(이를테면 集團連圈文)로 발전하지 못하고 重圈文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松亭里 분청사기는 그 생명이 끝이 난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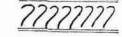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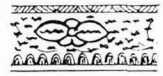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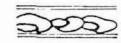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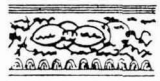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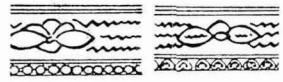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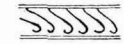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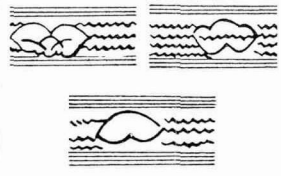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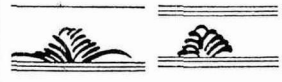
2. 陶水里 분청사기와의 비교

松亭里와 陶水里와의 비교는 대접문양의 비교, 銘文片 비교, 문헌비교 등을 하므로써 두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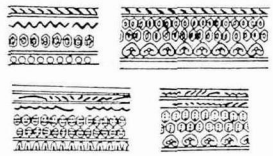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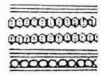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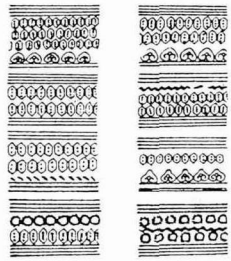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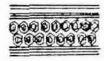
1) 대접문양의 비교는 두 지역의 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표 2〉.

<표 2> 광주 陶水里 도편 유형분류표

I型 蓮唐草文

		파편	문양구도	내면문양	외면문양	태토	유약	번조방법
가	A式	1, 2 3, 4	3단구도		線文,  文	灰色硬質	青磁釉系 透明釉	포개어 번조함
	B式	5	2단구도		 文	〃	〃	〃
	C式	6, 7, 8	1단구도		線文	粗質의 黑灰色	〃	〃
나	A式	9	2단구도		線文	灰色硬質	〃	〃
	B式	10, 11	2단구도		線文  文	〃	〃	〃
다	A式	12, 13 14	1단구도		線文	〃	〃	〃
	B式	15, 16 17	1단구도		線文	〃	〃	〃
라	A式	18, 19 20, 21	1단구도		無文	灰褐色陶器質	〃	〃
	B式	22	1단구도		無文	灰色硬質 灰色陶器質	〃	〃
	C式	23, 24 25, 26	1단구도		無文	灰色硬質	〃	〃

II型 印花文

	파편	문양구도	내면문양	외면문양	태토	유약	변조방법
A式	27, 28 29, 30	3 단구도		線文, 文	灰色硬質 黑灰色陶器質	青磁釉系 透明釉	포개어 변조함
B式	31	2 단구도		線文	灰色硬質 黑灰色陶器質	〃	〃
C式	32, 33 34, 35 36, 37 38, 39 40	1 단구도		 線文, 無文	灰色硬質 黑灰色 陶器質	〃	〃

姜敬淑, 1983.「연당초문변천과 인화문발생시고」『梨大史苑』20에서 인용

松亭里의 I型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은 陶水里의 연당초문에 비해 발전상이 다양하지는 않으나 그 흐름이 陶水里와 거의 비슷하다〈표 2 참조〉. 예컨대 陶水里의 I型가 A·B·C식과 松亭里 I型가 A식과는 연당초문의 양상에서 볼 때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또 松亭里의 I型가 B식은 당초문이 지그재그의 파도문의 형태로 된 종류인데 陶水里의 경우에서도 I型나 B식과 I型다 A·B식이 파도문의 모습으로 변한 예들이다. 松亭里 I型나의 초화문계열도 陶水里의 I型라 B·C식에서 그 예가 보인다.

이상에서 볼때 松亭里와 陶水里 두 지역의 분청사기의 양태는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松亭里의 경우는 陶水里에 비해 문양의 짜임새가 엉성하고 흐트러져 있음이 감지된다.

I型에서 두 지역간의 차이점은, 陶水里 경우는 I型라 A식·B식·C식에서 보듯이 흐트러져 가던 연당초문에서 핵심적인 연꽃만이 남아 생동감 있는 사실적인 연꽃으로 진행되고 또 초화문에서도 필선이 시원한 한포기의 풀포기 모습이 잘 살려져 있다. 이때에는 핵심적인 문양외의 배경은 모두 생략된다. 따라서 단순, 생략, 퇴보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문양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마저 생략될 때는 중권문대접을 거쳐 완전 무문으로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나 陶水里와 松亭里 양 지역이 모두 무문대접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비해 松亭里 경우에는 활달한 필선의 문양이 그리 눈에 띠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 제작자의 시문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싶다.

두 지역간의 차이점은 松亭里 II型 상감·인화기법 혼용의 예에서도 나타난다. 陶水里에서

는 대접내면 중심문양대에 상감과 인화기법이 혼용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데 비해 松亭里 가마에서는 II型에서 특색을 보인다. 연화문은 흑백 상감기법을 고수하지만 배경의 당초문은 국화 도장으로 낱개의 꽃을 찍는 인화기법이 등장한다. 이 혼용기법은 고려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인화기법에서 특징을 보이는 분청사기로의 이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松亭里의 II型은 연당초문의 기본 구도 위에서 연꽃의 변형된 모습도 나타나고 또 忍冬文(?)과 같은 모습도 나타나는 점이 松亭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다. 상감·인화의 혼용기법의 문양구도 역시 2단에서 1단으로 단순화 되면서 결국 몇 줄의 횡선문 만이 남는 중권문 대접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松亭里 III型 印花文 경우에는 III型가 A 식과 같이 3단 구도의 단정한 모습도 있으나 대개가 1단구도로 육각판문, 국화문, 육원문 등 세 종류의 도장으로 시문하고 있다. <표 2>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陶水里 인화문대접은 문양이 안정감 있게 짜임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松亭里 인화문 대접은 도장이 성글게 시문되고 있어 인화기법으로서의 정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陶水里와 松亭里는 대접문양 양상으로 보아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를 들어내는것 같고 松亭里가 陶水里 분청사기보다 조금 앞선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두 지역의 대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은 같은 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松亭里가 陶水里보다 기술적인(?) 혹은 미적인 감각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2) 두번째는 두 지역의 銘文도편의 비교이다. 松亭里에서는 관사명으로는 「司膳」<그림 24>, 「膳」<그림 25> 등의 흑상감 관사명과 또 접시 외면에는 「官員海員珠司永永」<그림 26>이라는 음각문이 새겨진 예가 수집된다. 「司膳」은 「司膳署」의 약자이며 그 임무는 왕의 식사를 맡아보던 중앙관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松亭里 가마는 중앙에 그릇을 상납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陶水里 가마는 松亭里 가마와 같이 관청이름이 새겨진 도편은 수집되지 않았으나 「聖」<그림 27>, 「憫(?)」<그림 28> 등과 같은 명문이 대접과 접시 내저 중앙에 백상감되었다는 사실은 陶水里가마도 중앙 상납가마임였음에 틀림없다고 본다.

3) 중앙에 그릇을 상납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뒤에 제작시기를 다루는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두 지역 모두 『世宗實錄』 地理志에 磁器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松亭里는 忠淸道 全義縣條에 보면 磁器所가 2곳 있는데 한 곳은 縣西쪽의 芒峴里이고 또 한 곳은 縣南쪽의 松峴里에 있는데 두 곳 모두 中品 磁器를 생산한다고 기재되어있다<참고 1>. 이 松峴里가 지금의 松亭里이다. 또 陶器所는 縣西 釜洞里에 1곳 있는데 中品을 생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陶水里는 京畿道 廣州牧 土產條에 보면 磁器所 4곳과 陶器所 3곳이 있다고 되어 있다. 磁器所 4곳중 3곳은 모두 州東쪽에 있는데 이를테면 伐乙川(上品), 所山(下品), 그리고 羔峴(표시없음)이고 南쪽의 石掘里에서는 下品의 자기를 생산한다고 기재되어있는 바 羔峴이 지금의 陶水里이다.[6] 또 陶器所는 東쪽의 草伐里(下品), 南쪽의 草峴(中品), 西쪽에 西串(下品)에 있다고 되어있다.

6) 姜敬淑, 주 3) 앞글, pp. 22~23.

<참고 1> 世宗實錄卷第一百四十九

世宗實錄卷第一百四十九

全義縣本百濟仇智縣新羅改爲金池縣爲大麓郡領縣高麗改名全義縣屬淸州任內本朝 太祖乙亥始置監務 太宗十四年甲午伊於燕歧改號全歧丙申復析爲全義縣監四境東距淸州十三里西距天安七里南距燕歧十一里北距木川六里戶一百六十六口五百七十二軍丁侍衛軍二船軍九十二土姓二李兪七姓一河次姓一全厥土壇風氣多寒墾田一千五百七十五結水田四分七一九 土宜稻粟土眞芝草棗柿山獺皮狐皮胡桃漆黃毛雜羽藥材人參白木鐵場在縣東西方洞中品磁器所二一在縣西芸峴里一在縣南松峴里皆品中陶器所一在縣西釜洞里中品

이상에서 볼때 松亭里와 陶水里의 분청사기의 양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松亭里가 문양변화에서는 후진성을 보인다. 또 문헌기록에서도 양지역이 모두 磁器所로 기재되어 있고 또 官司銘괴 銘文도편이 수집되는 점은 중앙과 관계가 있었음도 시사하며 이점 역시 양지역이 같다. 그러나 광주와 연기라는 두 지역의 분청사기는 14세기 상감청자에 뿌리를 두고있다는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 점이 파악되었다.

V. 松亭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

松亭里 분청사기 제작시기 문제는 문양양식, 官司銘도편, 문헌기록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1) 문양 양식상의 측면은 IV장에서 陶水里 분청사기의 문양과 비교했다. 그 결과 松亭里 분청사기는 陶水里의 양상과 같은 궤도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蓮唐草文의 존재, 성근 문양구도, 六角瓣文과 六圓文의 사용, 草文의 존재, 重圈文대접 등의 양상이 양지역 비슷하다. 그러나 문양내용에서 상감과 인화기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松亭里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했다. 陶水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1420년을 전후한 때라고 추정한바 있었기 때문에[7] 松亭里의 제작시기도 1420년경 언저리에 비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대추정이 가능한 문양은 蓮唐草文이다. 연당초문을 대접의 중심문양으로 채택한 대접중

7) 姜敬淑, 주 3) 앞글, pp. 17~23.

에는 상술한 1365년경의 「正陵銘대접」[8]과 1400~1420년 사이 어느해에 제작된 「恭安銘대접」 그리고 두 점의 「粉青印花菊花文恭安府銘대접」(이하 「恭安府銘대접」)이 있다[9]〈그림 29〉 「正陵銘대접」과 「恭安銘대접」은 松亭里 출토 蓮唐草文의 연대를 비정하는데 편년자료가 되며 「恭安府銘대접」은 연당초문과 함께 출토되는 성근 印花文대접편의 연대를 비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밖에 重圈文대접의 연대를 측정하는데는 영전사지(令傳寺址)에서 나온 1388년 이전으로 비정되는 「靑磁象嵌重圈文대접」〈그림 30〉[10]이 있다.

「正陵銘대접」을 모체로 한 蓮唐草文系의 문양은 14세기에 들어와 강진으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 각 지방에서도 이 문양은 계속 대접의 중심문양으로 애용했으며 松亭里가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형 단순화 해가면서 무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상감기법 대신 도장무늬를 새기면서도 연당초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면 松亭里 가마와 같은 양상은 대체로 어느 기간에 해당하겠는가 하는 松亭里의 제작시기 문제를 생각해 보자. 거듭 언급했듯이 연당초문이 언제 상감청자의 무늬로 애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65년경(「正陵銘대접」)에는 분명히 상감문양으로서 존재했고 또 언제 구체적으로 소멸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20년이 下限인 「恭安銘대접」까지는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의 상호관련도 두 점의 「恭安府銘대접」의 존재로 알 수 있다. 또한 중권문대접의 연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1388년 추정 중권문대접(영전사지 출토)을 근거로 하여 松亭里 중권문대접의 제작시기도 언급해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松亭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는 松亭里의 연당초문계열의 도편과 「正陵銘대접」과의 비교, 松亭里의 연당초문계열의 도편과 「恭安銘대접」과의 비교, 松亭里 연·국화문계열과 「恭安府銘대접」과의 비교, 松亭里의 重圈文대접과 영전사지 출토 중권문대접과의 비교 등을 통해 더듬어 보기로 한다.

松亭里의 연당초문계열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이 생략되면서 당초문이 파도문으로 변하고 또 간략한 초화문으로 남더니 급기야는 몇줄의 횡선만 남으면서 무문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당초문 대신에 연화문 혹은 육각판문, 육원문 등의 도장을 찍어 인화기법으로 변형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로는 연당초문 구도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상감기법이 印花기법으로 대치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말 할 수 없으나 「恭安府銘대접」의 내면중심문양대가 인화기법으로 메꾸어지는 때에 비정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恭安府의 존속기간이 1400~1420년이므로 松亭里 인화기법의 대접도 이 시기에 일단 비

8) 「正陵銘대접」은 노국공주의 陵 이름인 正陵이 새겨있기 때문에 노국공주가 죽은 1365년 경으로 비정한다.

9) 恭安府가 새겨진 종류에는 恭安 또는 恭安府가 있는데 恭安府는 정종의 上王府이다. 정종은 1400~1420년까지 20년간 上王으로 추대 받았으므로 恭安 혹은 恭安府銘대접이나 접시는 1400~1420년 사이로 그 제작시기가 비정된다.

10) 강원도 원성군 본부면 영전사터에서 洪武21年戊辰 4月이라는 글이 새겨진 塔誌와 함께 발견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입지름 19.6 cm, 굽지름 6.0 cm.

정해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비약적인 면도 없지않으나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의 「恭安銘대접」과 인화기법의 菊花文이 시문된 「恭安府銘대접」이 같은 시기에 공존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松亭里의 상감기법의 연당초문대접과 인화기법의 대접이 같은 가마에서 수집된다는 사실은 松亭里가마도 1400~1420년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질 것이다.

영전사지 출토 중권문대접(1388년 추정)과의 비교에서는 重圈文의 기법은 같지만 1388년이 중권문대접의 편년기준이 되기에는 애매하다. 단지 1388년 이전에도 중권문 대접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줄뿐이지 1388년이 중권문대접 편년의 절대 기준치는 아니라고 본다. 또 분청사기 가마터가 주로 한강 이남에 많이 퍼져있는데 모든 지역의 분청사기가마가 일정기간 중권문 대접을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단순 생략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松亭里 중권문대접이 1388년 언저리에 비정될 것인가? 라는 점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14세기 청자상감대접의 문양들이 생략되어 가면서 중권문이 최후로 남는 현상이라고 볼때, 松亭里의 중권문은 1388년 전후 시기에 비정될 것이나, 松亭里 경우에는 연당초문의 상감기법이 단순해지면서 오히려 국화도장을 찍는 인화기법과 함께 두 기법이 혼용되어 복잡한 문양구도로부터 단순한 구도로 단순·생략되어 급기야는 몇줄의 횡선문인 중권문대접으로 되는 양상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松亭里에서는 1388년 이전에 이미 상감·인화기법이 혼용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松亭里의 중권문대접이 1388년에 비정된다면 상감·인화기법의 그릇들은 그 이전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추론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고 역시 두 기법의 혼용시기는 1400~1420년경으로 보아야 순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 官司銘片과 문헌기록에 근거해서 볼때 松亭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官司銘片으로는 흑상감 기법의 「司膳」<그림 24>, 「膳」<그림 25>[11] 등의 문자가 수집되었는데 모두 접시나 대접 안바닥 중앙에 새겨있다. 흑상감 기법의 관사명의 예는 고려적인 전통으로서 15세기 극초 즉 1410년대까지 남아 있는 기법이고 대체로 1420년대 이후로는 흑상감 대신 백상감 내지는 도장을 찍은 후 백토를 감입하는 기법이 유행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러므로 松亭里 가마의 활동시기는 1420년을 분계선[12]으로 볼 때 1420년보다 앞일 가능성이 짙다. 혹 1420년을 넘는다 해도 1430년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접내면 문양중 연당초 문양이 쇠퇴하여 해체되는 과정을 거친 후 陶水里 경우와 같이 새로이 조선적인 생동감 있는 문양으로 발전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이라든지, 12세기 상

11) 「司膳」, 「膳」은 「司膳署」의 약자로 왕의 식사를 맡아 보던 관청이다. 1362년 고려의 尙食局이 司膳署로 되어 조선으로 이어지는데 太宗 17年(1417) 戶曹에서 啓한 내용중에 長興庫에 상납한 砂木器는 外貢元數內에서 各司에 分定上納케한 조처가 있는데 分定上納케한 관청중의 하나가 司膳署이다.

12) 姜敬淑, 주 2) 앞책, pp.371~376에 의하면 1420년경은 粉青沙器 前期(發生期)와 中期(發展期)의 구분선이다.

감청자운학문에 연원을 두는 鶴雨点文의 예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나(〈그림 25〉 우측 도편 참조)소위 조선적인 특징인 集團連圈文의 예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집단연권문의 예는 貞昭公主묘 출토의 두 점의 항아리에서 잘 보여주는데 정소공주는 1424년에 세상을 떠나므로 이 두 점의 항아리는 1424년보다 뒤에 제작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한 점은 조선적인 상감문양으로 변모한 草文과 아직은 고려적인 전통을 지닌 학무늬의 존재가 감지되는 문양의 소재가 혼용되어 제작된 항아리이고 또 한 점은 集團連圈文이 시문된 인화기법의 항아리라는 점〈그림 31〉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항아리는 바로 1420년 대를 대변해 준다고 보겠는데 松亭里 도편에서는 이와 같은 1420년대의 조선적인 분위기는 덜 감지된다. 또한 官司의 이름을 새기게 한것은 태종 17년(1417)이기 때문에[13] 松亭里의 官司銘片이 1417년의 조처 후에 제작된 것이라면 적어도 松亭里 출토「司膳」「膳」등의 파편들은 1417년 이후의 제작품이다.

또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匠人名이 있는 도편이 松亭里에서는 수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괴된 가마의 수습편들이기 때문에 혹 匠人名片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 수습된 상황에서 본다면 匠人名이 있는 도편이 없다는 것은 1421년 직전에 이미 폐요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14]

그런데『世宗實錄』地理志는 1424~1432년 사이의 상황이 기록된 지리서이다.[15]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世宗實錄』地理志에 보면 忠淸道 全義縣에는 磁器所가 두 곳 있는데 한 곳이 芒峴里요 또 다른 곳이 松峴里로 모두 中品의 磁器가 생산되었다고 한다. 芒峴里는 그 당시 全義縣 관청을 중심하여 縣西 쪽이고 松峴里는 縣南으로 되어 있는 바, 松峴里는 지금의 松亭里 마음임을 알 수 있다〈지도 2〉. 松亭里라는 지금의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상송동, 대중송동 등을 병합하여 송동과 사정의 이름을 따서 된 것이나[16] 松亭里 가마가 있는 바로 그 언덕을 요즈음 "점고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토가 나는 고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고개는 "峴"이므로 점토가 나는 바로 이 언덕에서 그릇을 구웠을 것이며 그릇의 종류는 분청사기라고 본다. 또 松亭里가 마터가 있는 바로 그 언덕은 아니라도 요즈음 지도를 보면 松亭里 점고개 이웃에 있는 고개가 모두 "솔치고개"로 기재되어 있다〈지도 3〉. 이러한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의 松亭里

13)『太宗實錄』卷 33, 太宗 17 年 4 月 丙子條에 의하면, 戶曹가 器血의 폐단을 없에기 위한 방안을 올리는 내용이 있다. 즉 국가 행사때 해당관청에 그릇이 나가면 돌아오는 수는 그 1/5 밖에 안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각 관청에 그릇을 납부하되 각각 그 관청의 司號를 새기게 하여 관물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모두 따라 행하였다는 기록이다.

14)『世宗實錄』卷 11, 世宗 3 年 4 月 戊申條. 工曹의 上啓로 그릇밑에 匠人이름을 새기게한 내용. "工曹가 진언하기를, 진상하는 모든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금후로는 그릇 밑에 匠名을 쓰게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고자 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 자의 그릇은 물리도록 하겠다. 이에 따랐다."

15) 鄭杜熙, 1976.「朝鮮初期地理志의 編纂(Ⅰ)」『歷史學報』69, 歷史學會, pp. 66~83.

16) 한글학회, 1974.『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성광인쇄사, p. 222.

도 "솔치고개"라고 명명했던 그 영역안에 들 것이고 세종때 넓은 범위에 걸쳐 소나무가 무성했었고 소나무가 무성한 범위 안에는 고개가 여러개 있었으며 이 고개들은 모두 "솔치고개"로 불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고개들은 지금까지 "솔치고개"로 불리우고 있는 반면 지금의 松亭里 점고개만은 그 근처의 흙을 가지고 그릇을 구웠던 관계로 특별히 점고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1424~1432년 세종 당시 이 자리는 中品의 磁器를 생산하던 松峴里 즉 솔치고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의 松亭里 점고개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따라서 松亭里 분청가마의 제작시기는 그 下限은 적어도 1432년 이전이요(『세종실록』지리지에 근거함)그 上限은 15세기 극초 즉 1400~1420년(「恭安銘대접」과 「恭安府銘대접」에 근거함) 어느 때라고 보겠는데 대접내면의 문양양식상으로 보아 연당초문 경우 고려적인 여운은 남아 있으나, 菊花文의 인화기법과 함께 혼합하여 대접의 중심문양대를 이룬 점으로 보아 1410년대쯤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발굴 당시 필자가 발굴 현장을 관찰했을때 가마벽의 경화상태라든지, 가마 바닥과 벽의 불탄 두께로는 그리 오래 사용된 가마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퇴적층이 파괴되어 지상에 노출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해 주는 분[17]의 말씀으로는 노출된 도편의 양으로 보아 퇴적층이 상당히 컸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가마는 적어도 1개 이상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발굴 담당자의 의견으로도 가마가 분명히 1개 이상이라고 한다.[18]

이상에서 설명하여 온 것들을 간추려서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의 제작시기 추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다.

첫째, 松亭里 가마가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 이전 즉 1424년 이전 어느때에 폐요되고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松峴里 中品 磁器를 구었다는 곳은 그 옆에 또 다른 가마일 가능성도 있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匠人이름을 새기게한 1421년의 조처 이후의 흔적이 없는 점을 중시한다면 松亭里 가마는 역시 1421년 이전에 폐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松亭里 가마는 그 下限이 1421년 이전일때 제작기간은 대체적으로 1410년대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또 「司膳」이라는 관사명이 있는 점으로 보아 1417년 이후 몇년간은 틀림없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된다. 한가마를 대략 10년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면[19] 松亭里 가마의 제작시기는 대략 1411~1421년이라는 일차적인 추론이 가능해 진다.

둘째, 松亭里 가마가 『世宗實錄』 地理志 자료수집 당시에(1424~1432) 제작활동을 했다고 본다면 1432년이 下限이 될 것이며 그 上限은 「司膳」銘도편에 근거했을때 1417년이 되어 결국 1417~1432년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匠

17) 조치원 문화원 과장 임영수.

18) 고대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이홍종.

19) 『承政院日記』 第255冊, 肅宗2年 8月1日條에 보면 "李觀徵以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分院沙器燔造之所, 排設取紫, 若近十年則樹木概盡, 決難繼燔, 故例移於他處矣…"라고 하여 分院이 10년이 되니 수목이 다 없어져 제작을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수집되지 않는 사실을 중시해야만 할 것이다. 문양 양식상으로 보아서도 集團連圈文의 존재라든지, 조선풍의 문양으로 변한 생동감 있는 문양 등이 없고 단순 퇴보만의 경향이 짙은 점으로 보아 두번째의 추정안보다는 오히려 첫번째의 추정안이 설득력이 있지않을까 한다.

셋째, 1420년 전후로 비정되는 광주 陶水里 분청사기와의 문양비교에서 볼 때도 두 지역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松亭里 분청사기도 1420년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VI. 맺 음 말

지금까지 연기군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 가운데 대접편만을 가지고 문양분석을 하였으며 아울러 관사명 도편과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을 검토하여 제작시기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미 발표된 광주 陶水里 분청사기 대접 도편들과도 비교하여 양 지역의 문양의 특색을 검토하였고 제작시기 추정에도 도움을 받았다.

이 결과 松亭里 분청사기는 14세기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상감청자의 문양이 단순, 생략되어 가는 현상을 파악했다. 또 상감기법은 일부 도장을 찍는 印花기법으로 대치시켜 두 기법을 혼용하면서 松亭里의 특색을 이루는 현상도 파악하였다. 몇가지의 방법을 모색하던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은 대접내면 문양구도가 복잡한 것으로부터 차츰 단순화되는 현상, 예컨대 4단구도에서 3단, 2단, 1단과 같은 형태로 변모하며 급기야는 문양 구획선만이 몇줄의 횡선문으로 남아(重圈文) 이들이 문양 구실을 하고 있음도 파악하였다. 대접 외면의 문양도 처음에는 14세기에 유행하는 복잡한 문양대(예컨대 「正陵銘대접」의 외면－〈그림 22〉 참조)가 그데로 이어지나 외면 문양도 대접내면의 현상과 같이 단순 생략되어 평행곡선문→평행사선문→몇줄의 횡선이 둘러지는 중권문→완전 생략이라는 과정을 걸으면서 외면은 내면보다 먼저 무문이 되고 만다.

松亭里 분청사기는 대접내면 경우 중권문대접으로 까지는 단순 생략되었으나 무문대접은 거의 눈에 띄지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전 무문으로 이행하기 직전에 폐요된듯 하다. 무문분청사기 대접은 대체로 백자편과 같이 공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松亭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주 학봉리의 경우는 분청사기로부터 백자로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마터의 하나이다. 학봉리의 요업기간은 1420년대로부터 1530년대 까지 100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었으며 가마의 수도 10여개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20]

松亭里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대접내면 문양, 「司膳」銘도편의 출토, 『世宗實錄』 地理志의

20)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1927년에 일차발굴되었고 다시 1992. 4~6월에 걸쳐 호암미술관과 국립박물관에서 재발굴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의 보고서에서 밝혀지리라고 본다.

縣南 松峴里 磁器所 中品이라는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때 1411~1421년이라는 시기의 추정과 세종 당시의 송현리는 지금의 松亭里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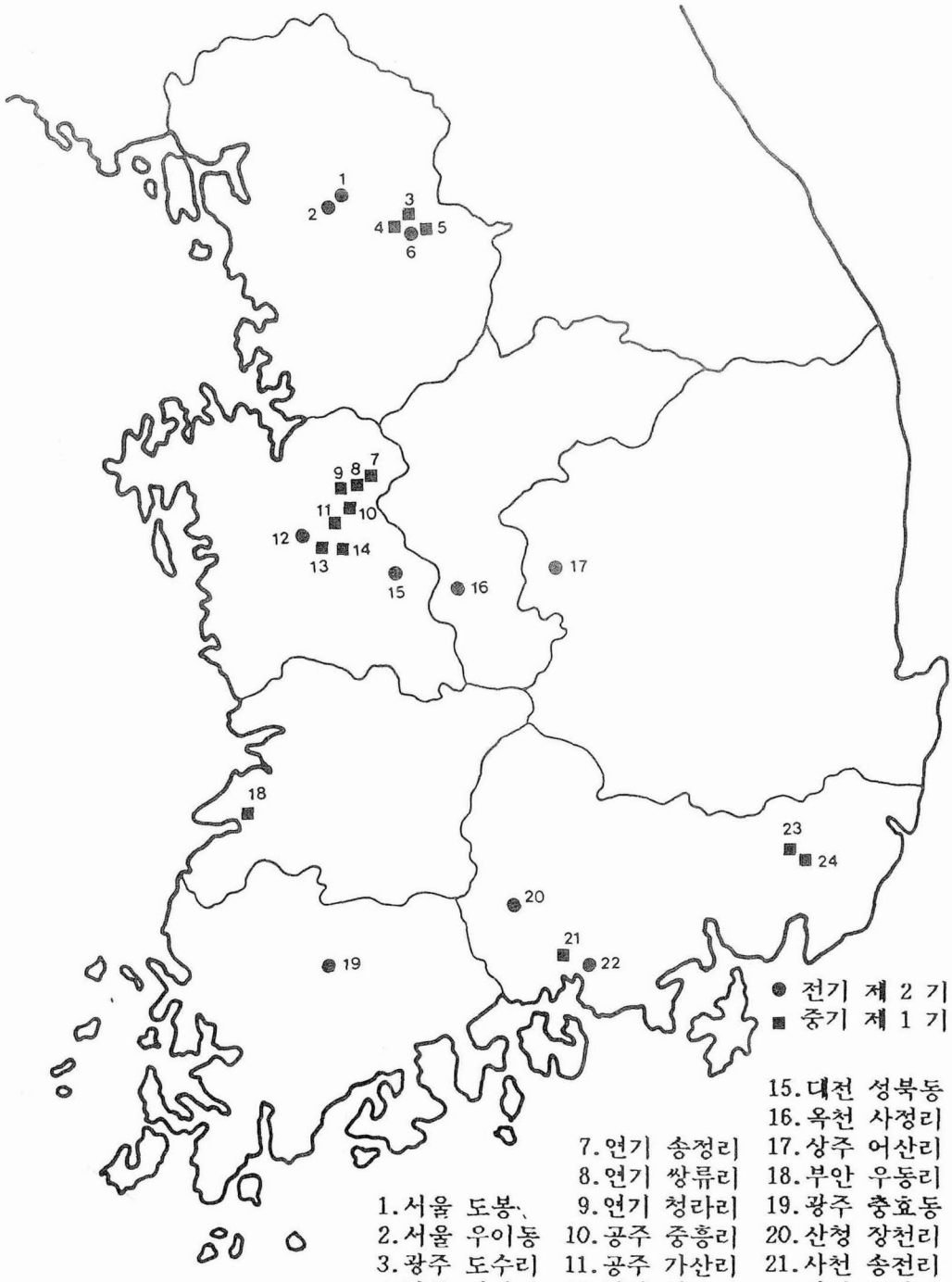
머리말에서 지적했듯이 松亭里가마는 파괴가마의 구제발굴이었으므로 수습도편의 체계적인 문양양식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광주 陶水里와의 비교가 가능하여 지역특색이 어느정도 밝혀졌으며 문양의 큰 흐름은 두 지역이 같은 궤도 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두 지역은 똑 같이 『世宗實錄』 地理志 토산조에 자기소로 조사되어 있었던 공통점도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이 유사한 성격을 띄고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즉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재된 磁器所·陶器所 문제로 세종 당시의 磁器와 陶器의 개념을 규명하는 일이다. 磁器는 白磁와 일부 粉青沙器를 지칭했을 것이고 陶器는 옹기 종류일 것이라는 의견은 이미 제시한 바 있었다.[21] 그러나 考證에 의해 좀더 확실한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松亭里 일대에서는 주로 분청사기가 수집되나 극히 드물게 百磁片도 일부 눈에 띈다. 그러나 백자질이나 제작기법으로 보아 松亭里 분청사기와 동시대로 볼 수 없고 이들 백자편들은 15세기 후반 이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松亭里 분청사기 가마터 근처 어디에 백자가마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백자가마터 확인은 후일의 과제로 미루겠고 백자가마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여튼 『世宗實錄』에 기재될때 송현리의 中品 磁器는 粉青沙器이지 백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점고개에는 좋은 점토가 출토되었을 것으로 보아 후대에 이 근처에서 생활용기로서 백자를 생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 당시 磁器所에서 中品을 생산한 종류는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룬 분청사기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松亭里 가마 주변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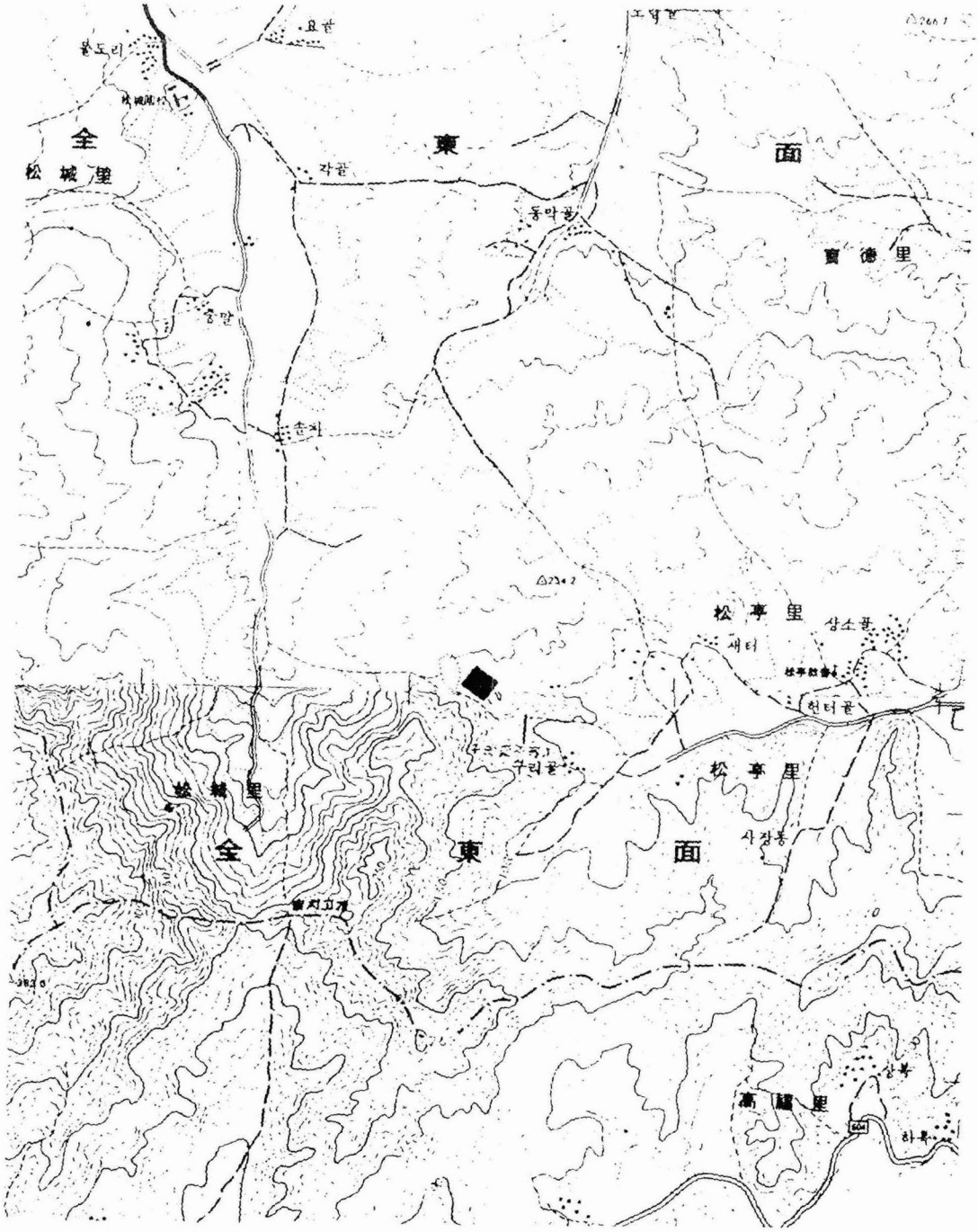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承政院日記』
- 忠淸南道燕岐郡·高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公州大學校博物館, 1991. 『松亭里陶窯址』, 高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調査報告 第1輯.
-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叢書 第三册.
- 한글학회, 1974.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 姜敬淑, 1983. 「蓮唐草文變遷과 印花文發生試考」 『梨大史苑』 20, 梨大史學會.
- _____, 1986. 『粉靑沙器硏究』, 一志社.
- 鄭杜熙, 1976. 「朝鮮初期地理志의 編纂(Ⅰ)」 『歷史學報』 69, 歷史學會.

21) 姜敬淑, 주 2) 앞책, pp. 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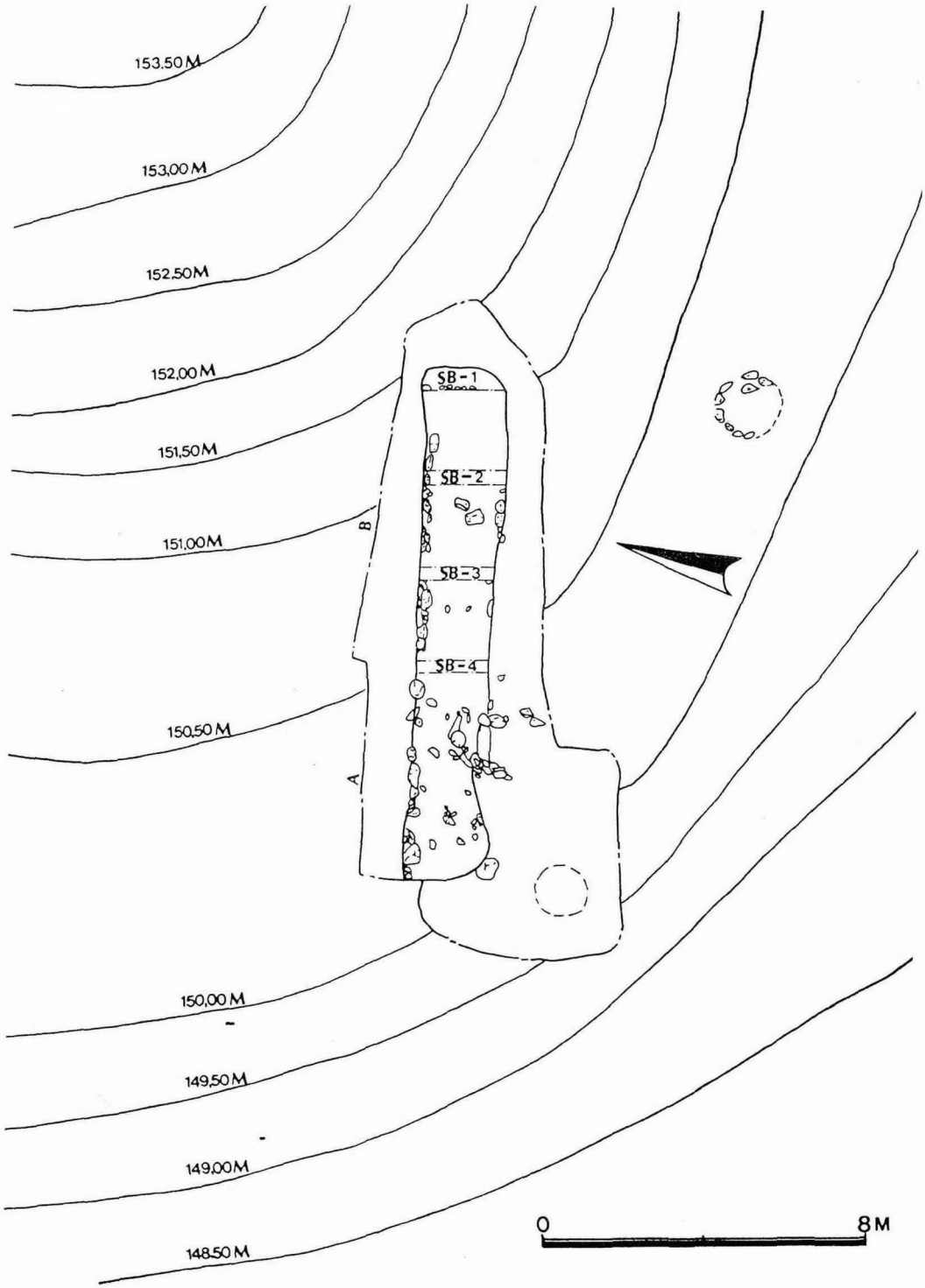


〈지도 1〉 조선초기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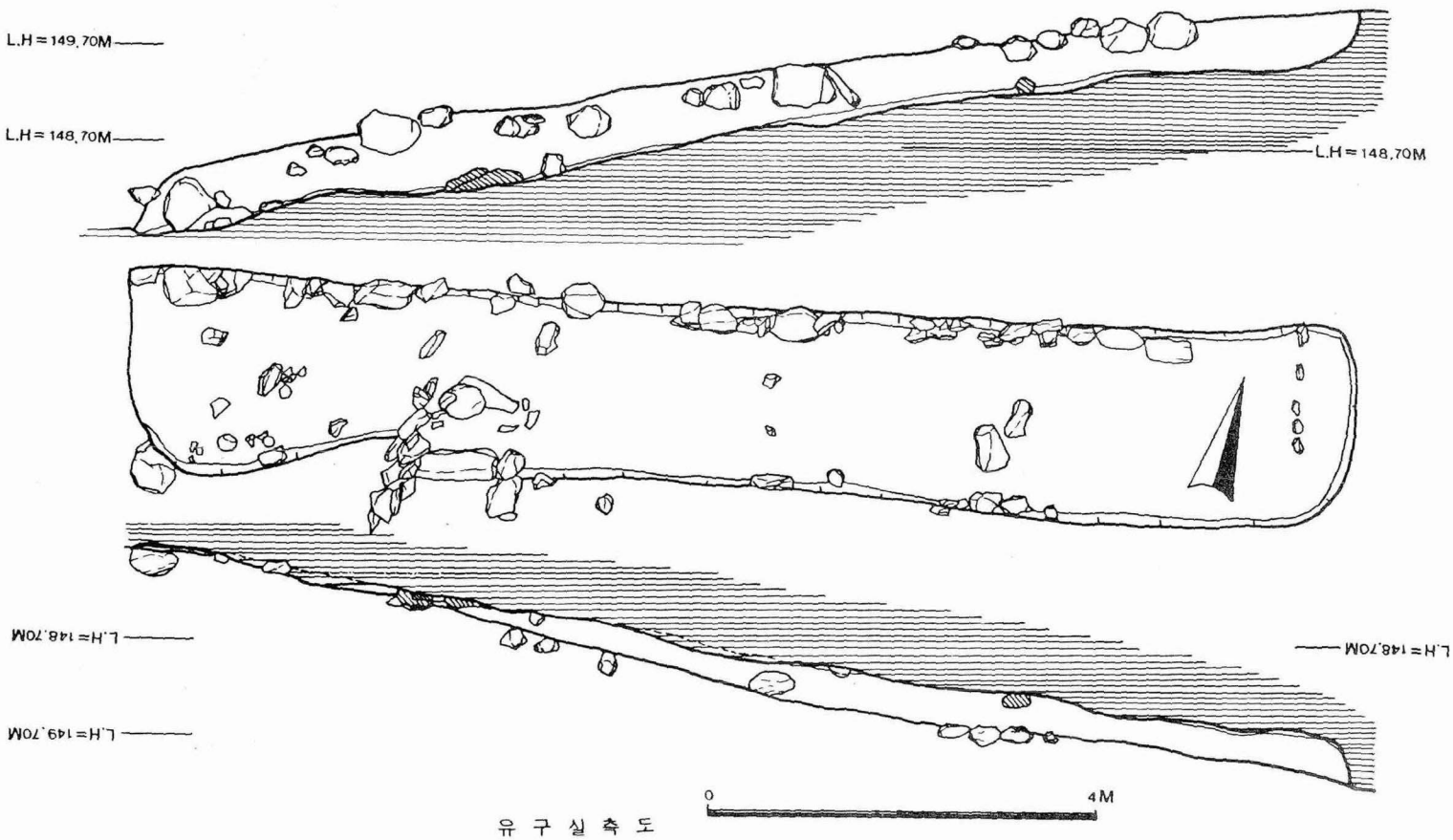
〈지도 2〉 대동여지도 전의부분도(제 15－12)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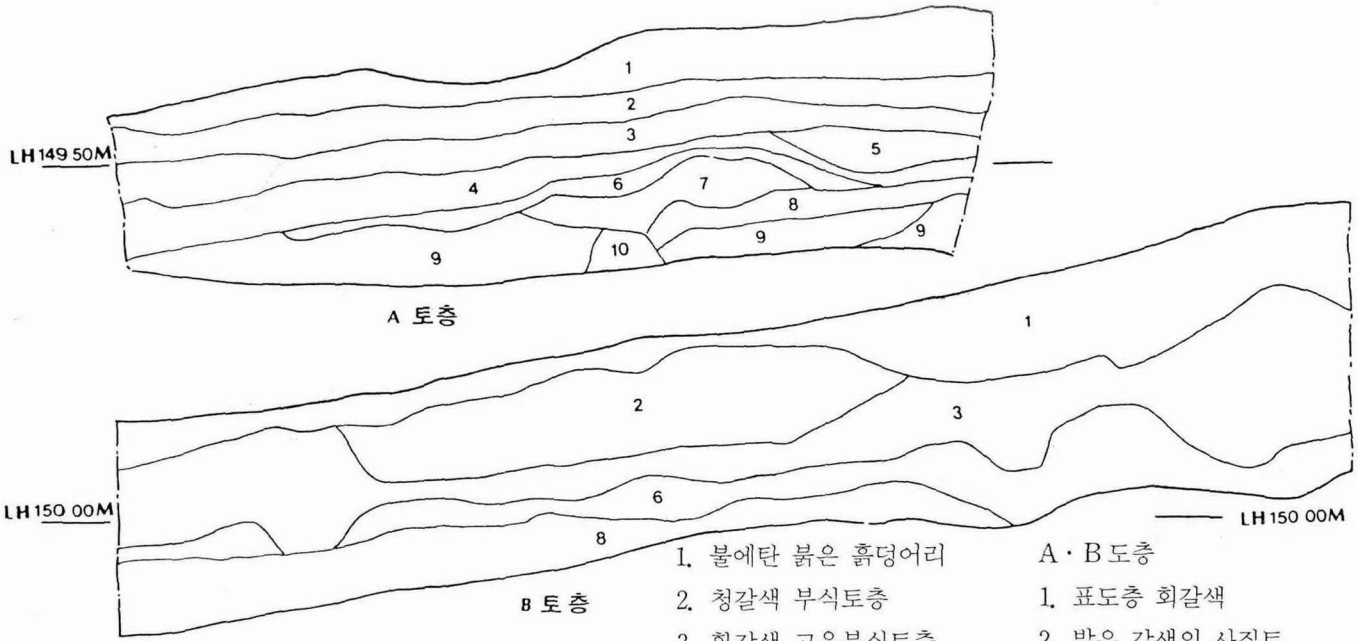
〈지도 3〉 송정리 유적 위치도(1/25,000)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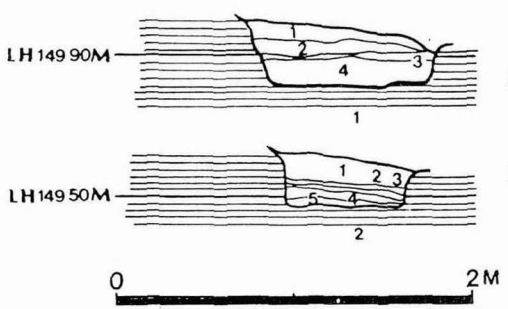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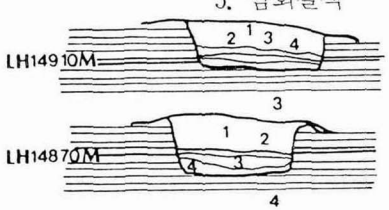
〈그림 1〉 地形測量圖(보고서에 의함)



〈그림 2〉 유구실측도(보고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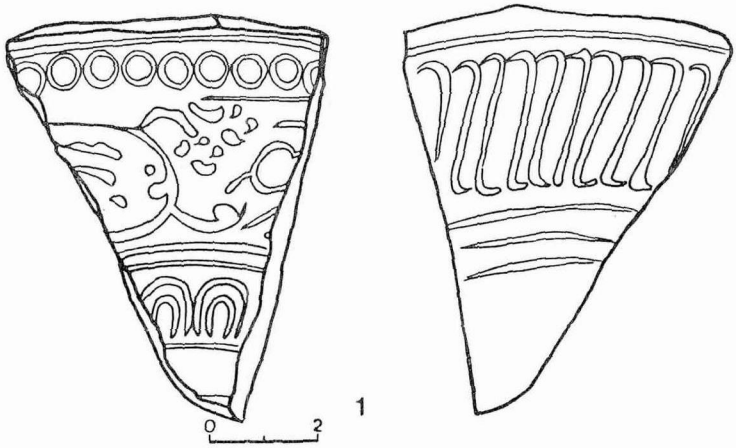


〈그림 3〉 토층실측도(보고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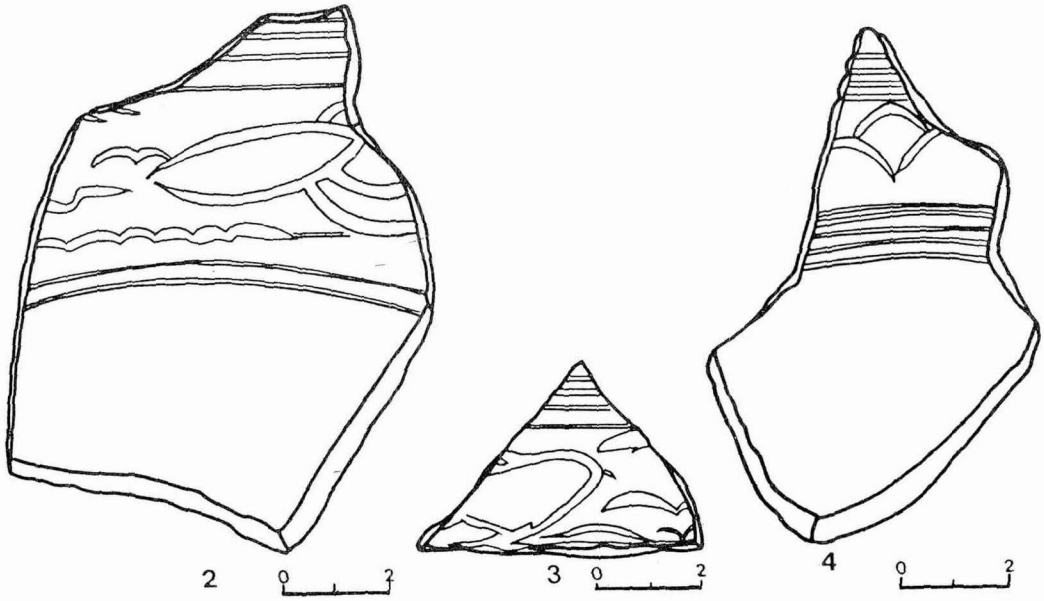
1. 불에탄 붉은 흙덩어리
2. 청갈색 부식토층
3. 황갈색 고운부식토층
4. 명갈색 (적색포함) 부석토층
5. 암회갈색

A · B 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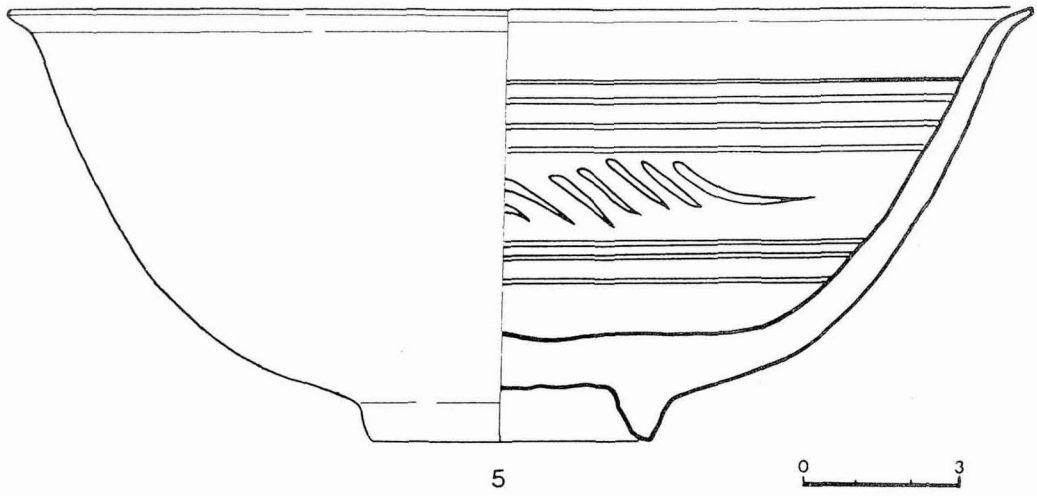
1. 표도층 회갈색
2. 밝은 갈색의 사질토
3. 황갈색 사질토. 작은 모래입자가 섞여 있다.
4. 황갈색 사질토. 3 보다 입자가 곱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섞여 있다.
5. 밝은 갈색의 사질토(약간 황색을 띰③+④) 입자가 ③보다 고우나 ④보다 곱지 못하다.
6. 암갈색 사질토
7. 암갈색 사질토(⑥보다 조금 밝다)
8. 흑갈색 사질토
9-a 흑적갈색 사질토
9-b 흑적갈색 사질토
10. 흑갈색 사질토(⑧보다 훨씬 어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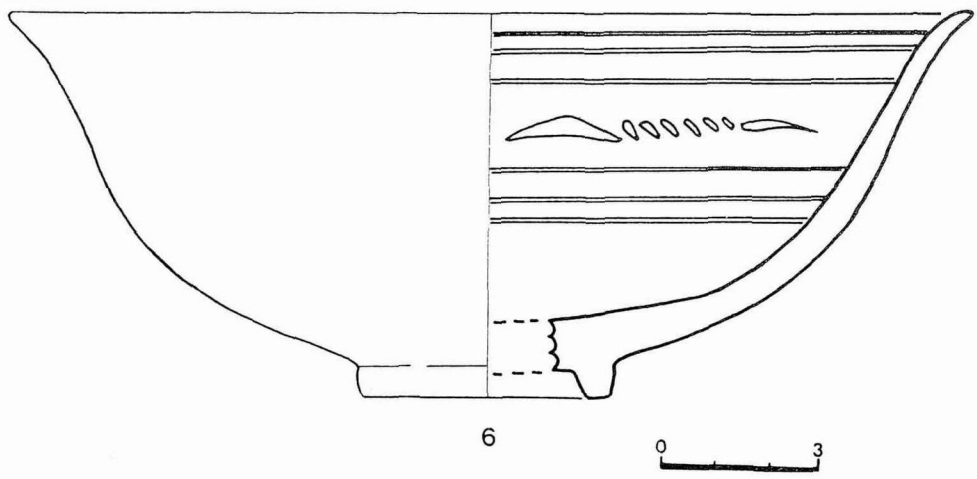


〈그림 4〉 Ⅰ型 가A식(도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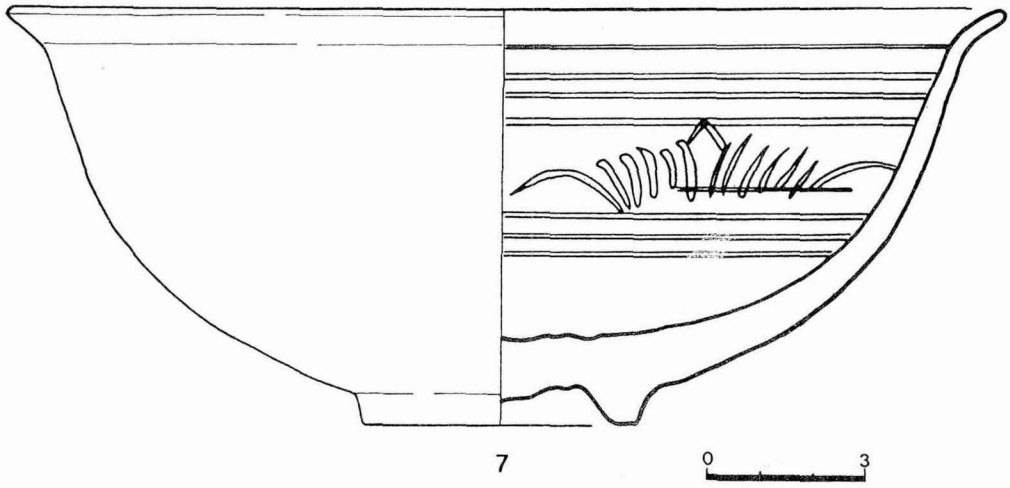


〈그림 5〉 Ⅰ型가B식(도편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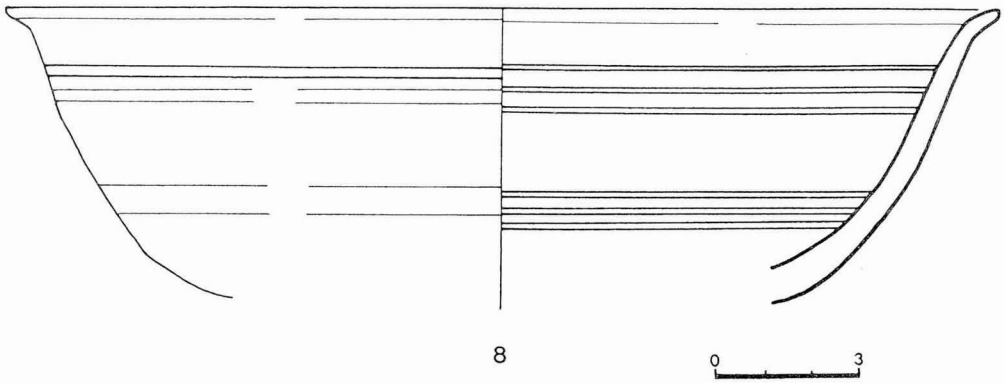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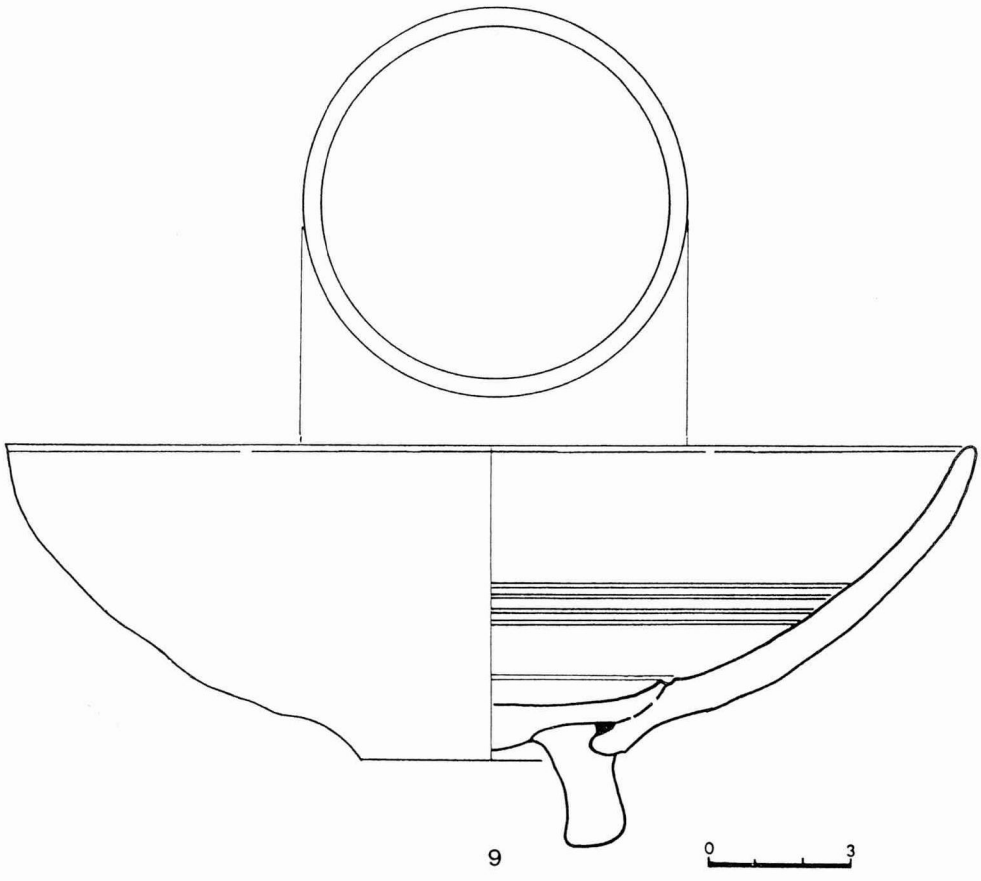


〈그림 6〉 I 찔나 A 식(도편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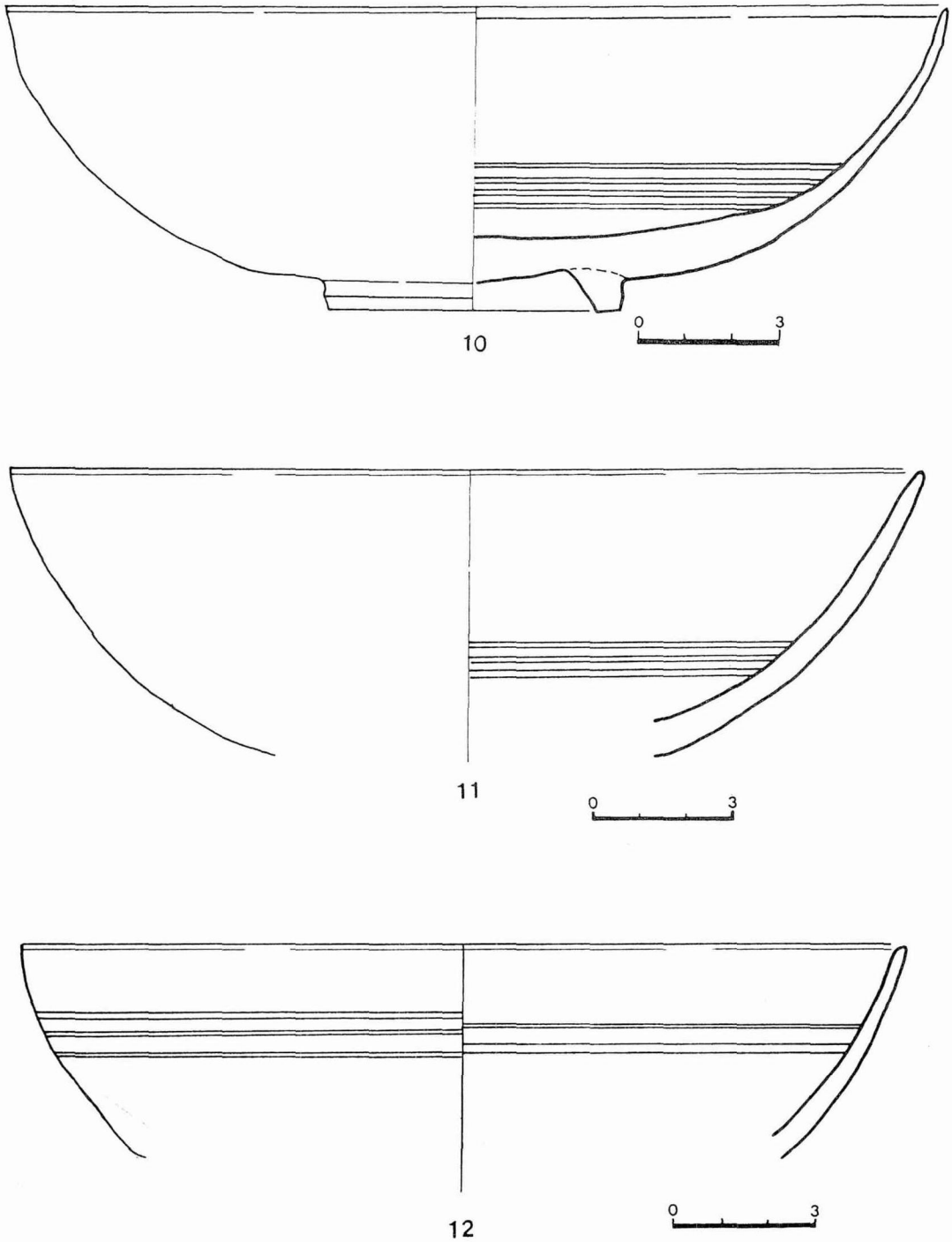


〈그림 7〉 Ⅰ짧나 B 식(도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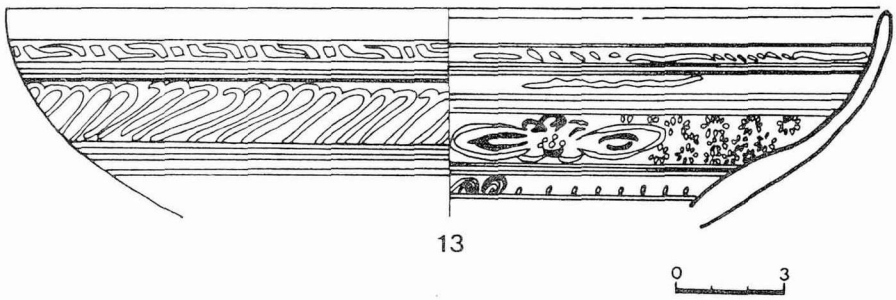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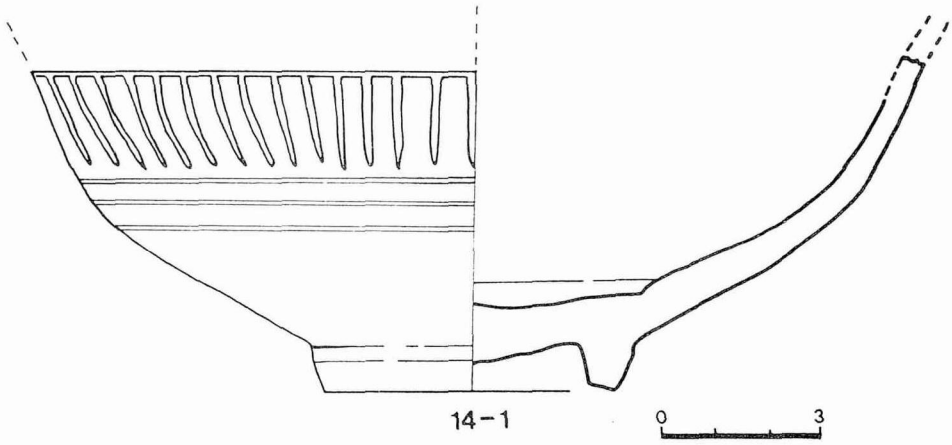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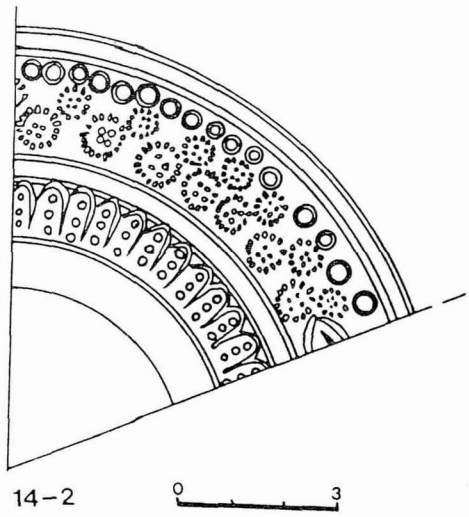
〈그림 8〉 I 型다 A 식(도편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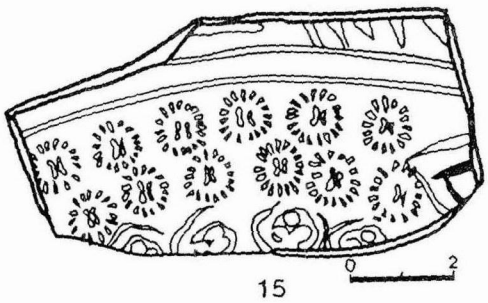
〈그림 9〉 I 型다 B 식(도편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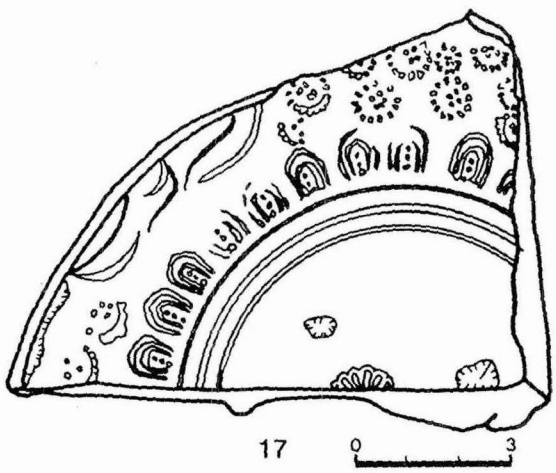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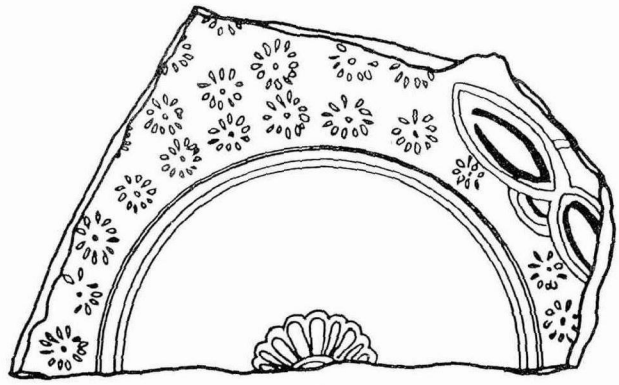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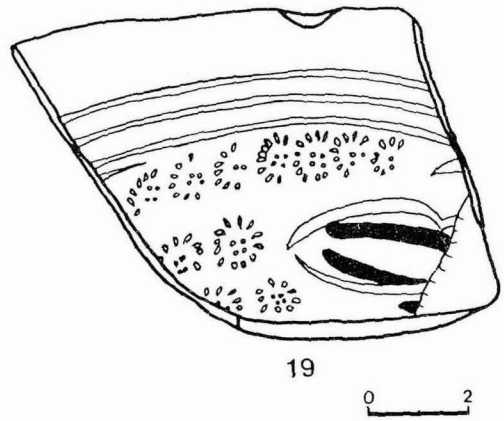
〈그림 10〉 II型가 A 식(도편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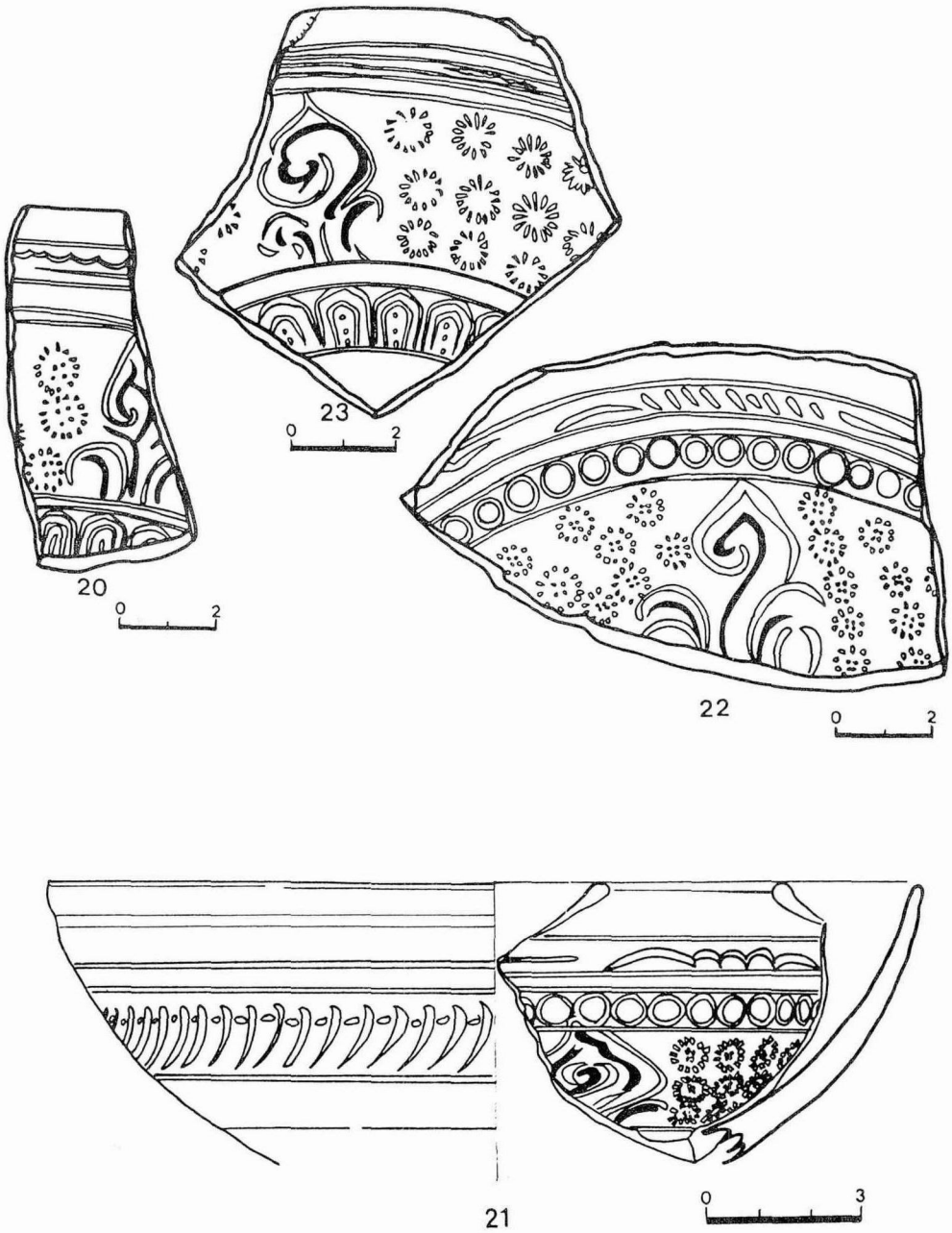


〈그림 11〉 II型가 B 식(도편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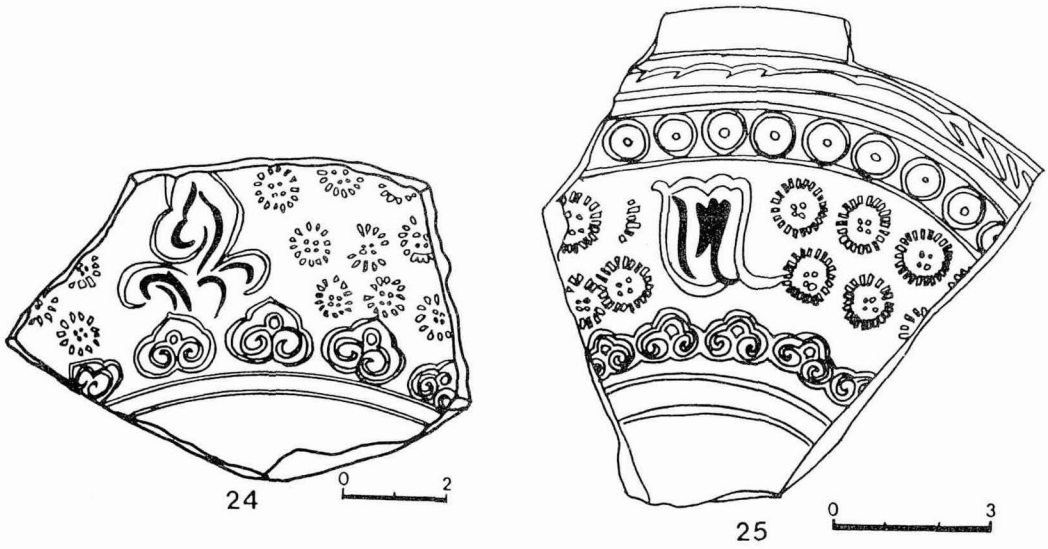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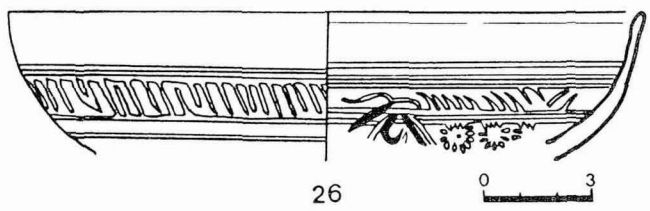
〈그림 12〉 II型가 C 식(도편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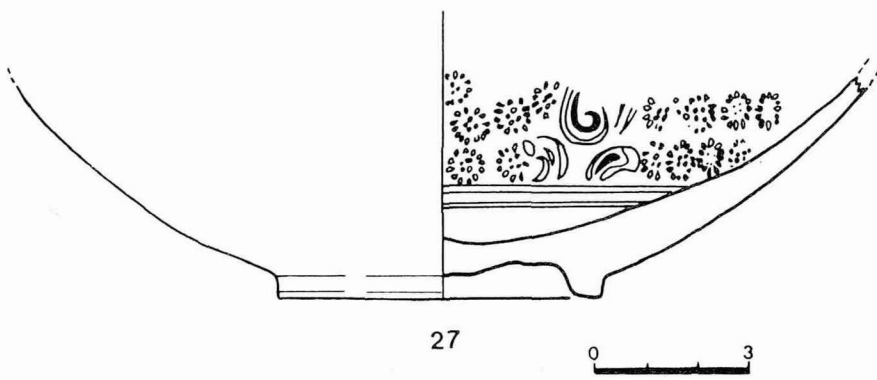
〈그림 13〉 II짤나 A 식(도편 20, 21,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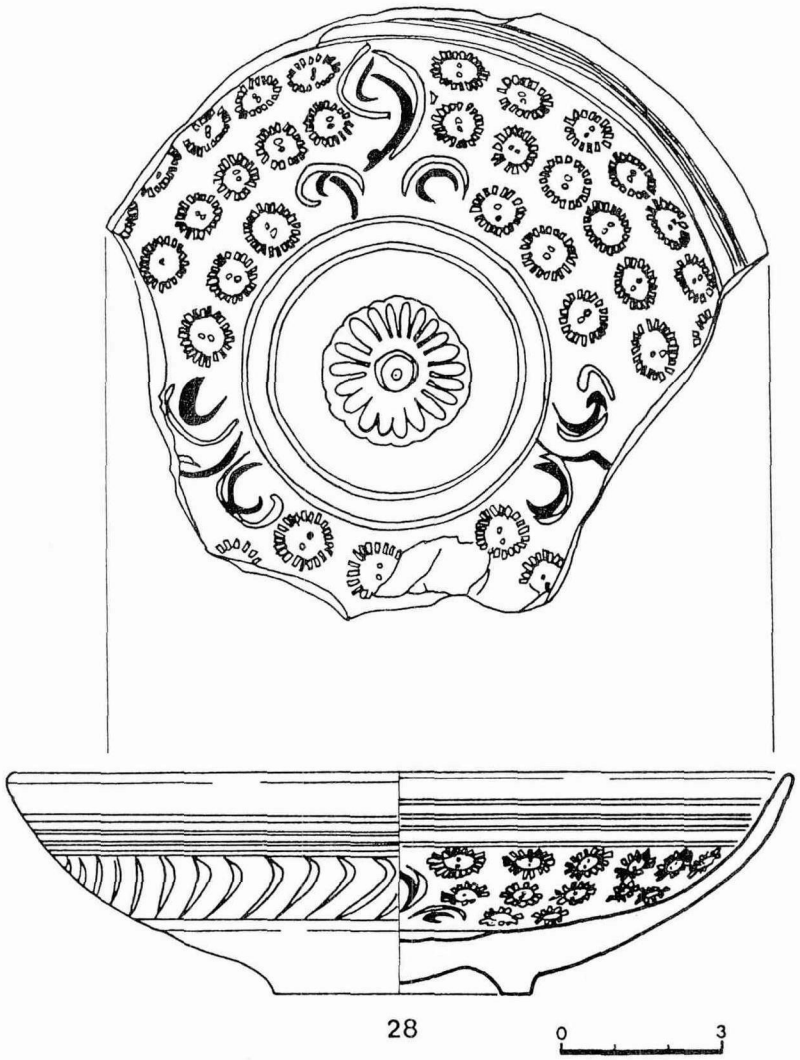
〈그림 14〉 II짤나 B 식(도편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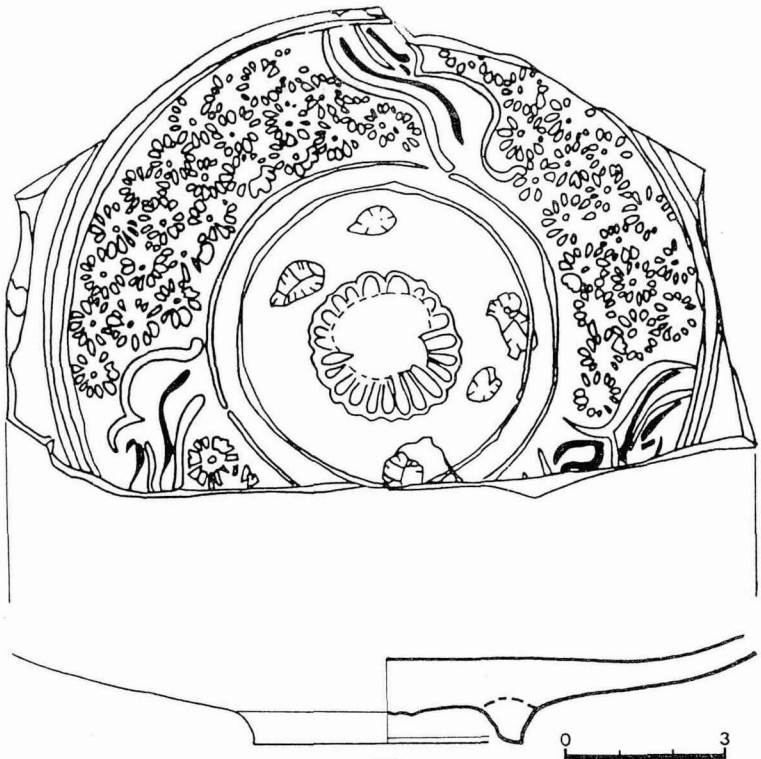


〈그림 15〉 II짤나 C 식(도편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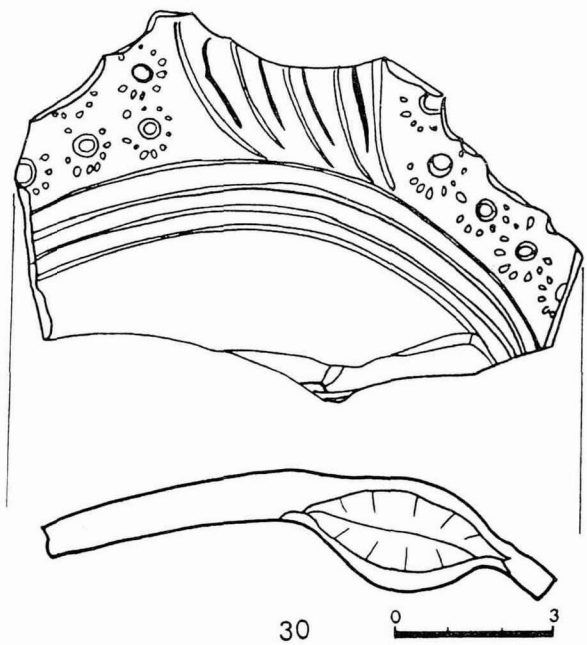


〈그림 16〉 II짤나 D 식(도편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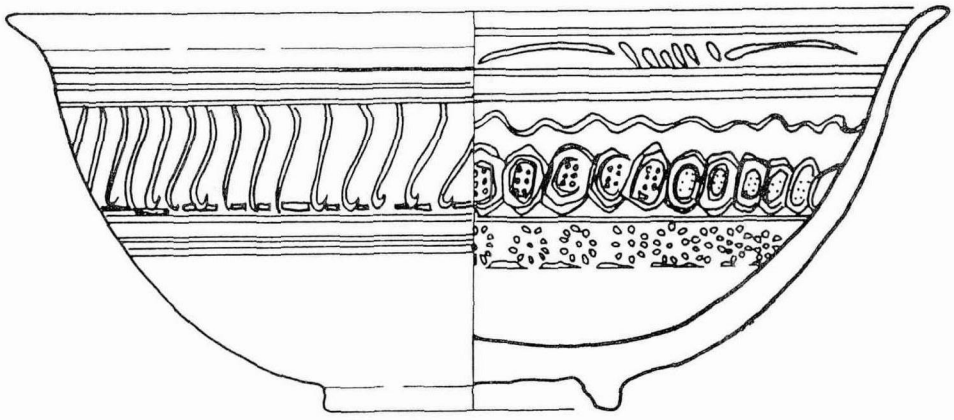

28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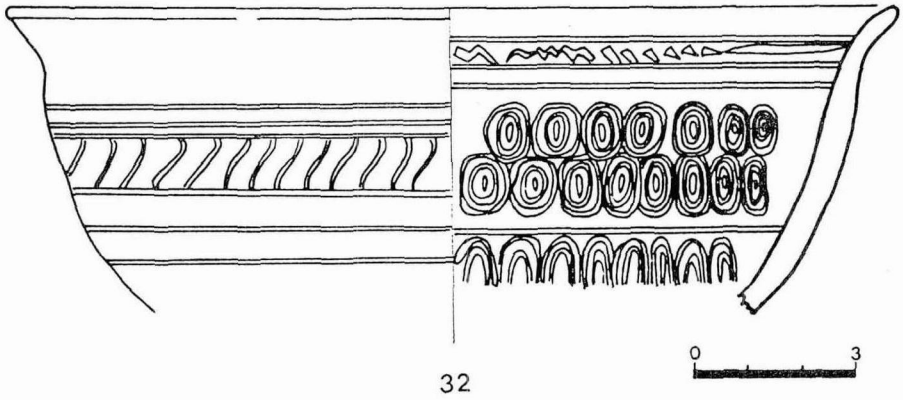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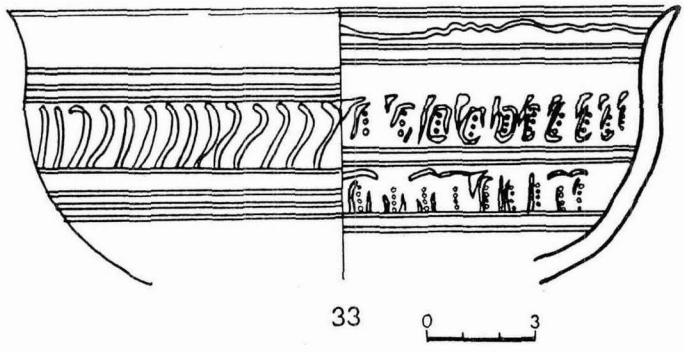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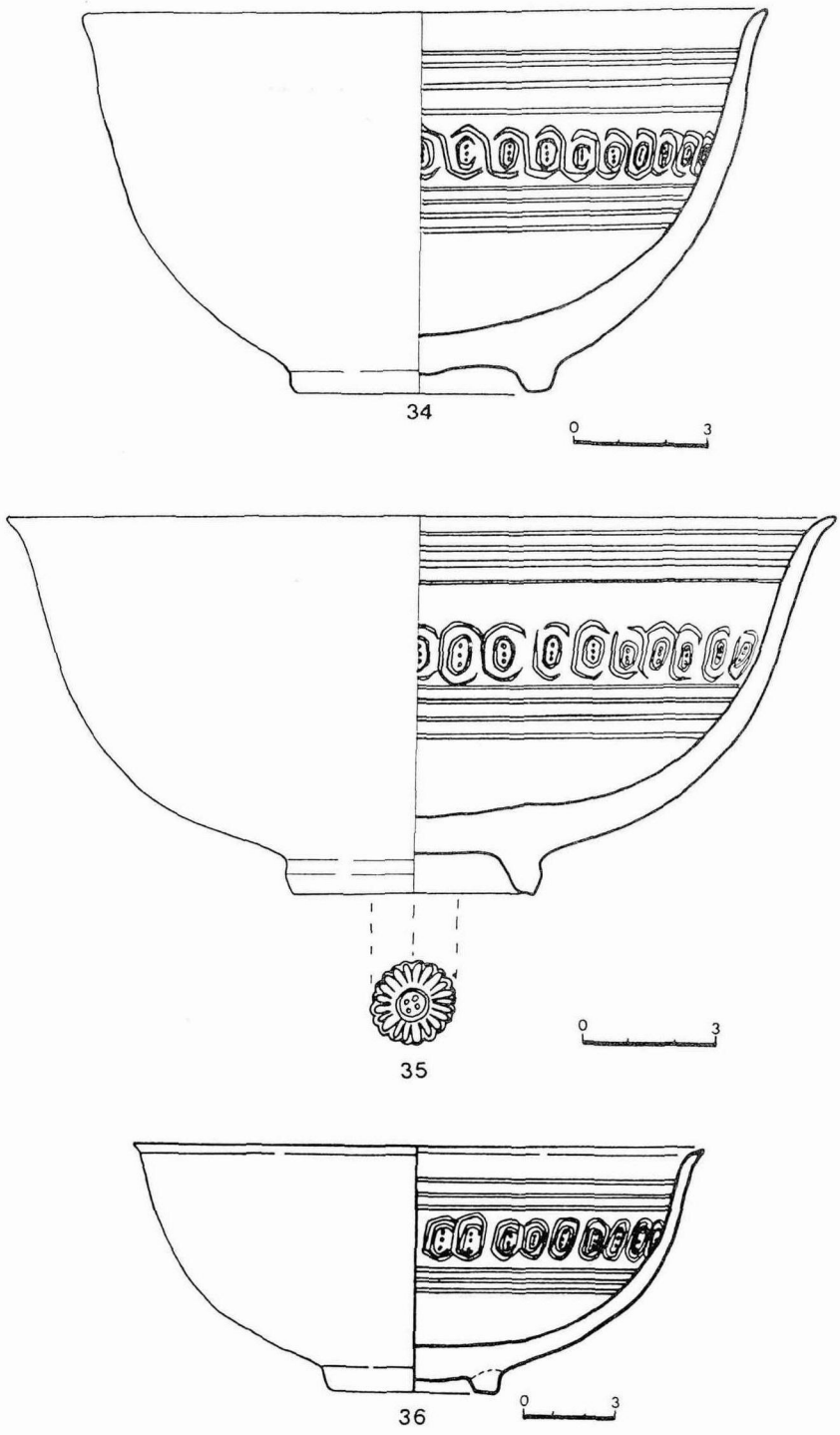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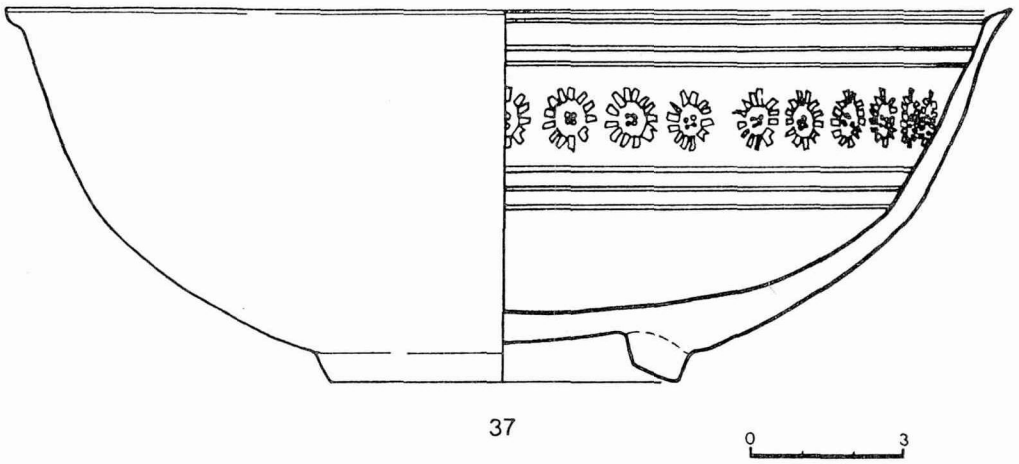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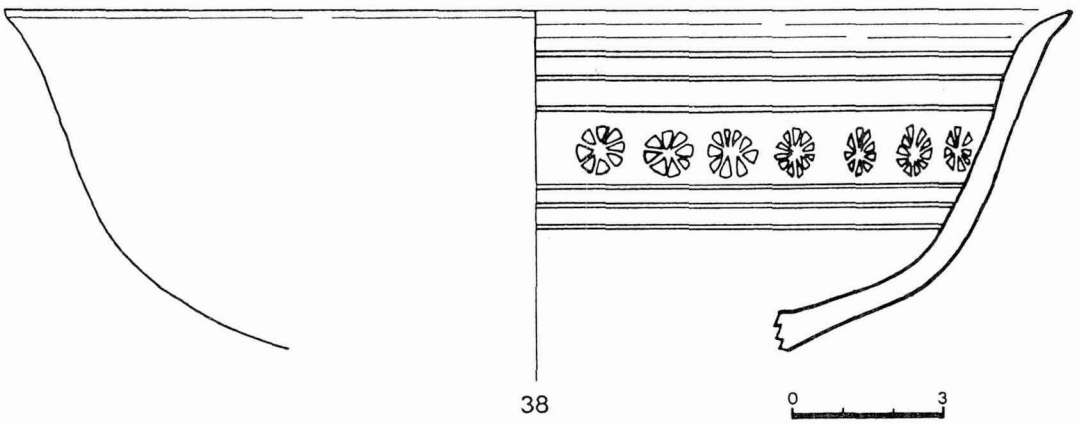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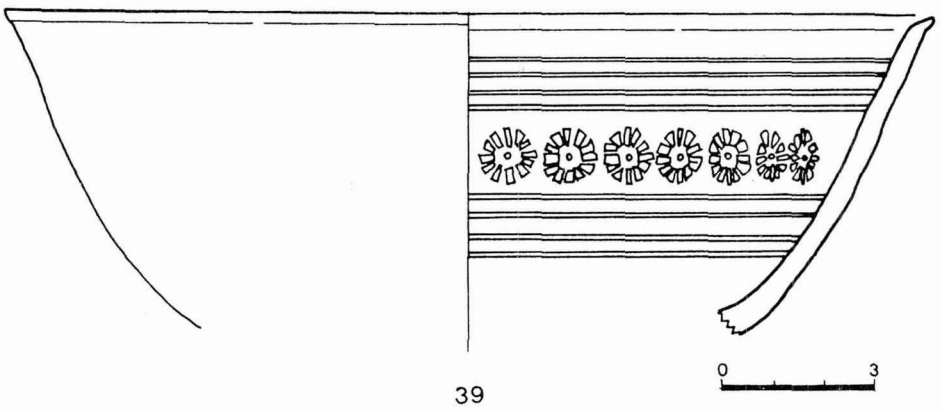
〈그림 17〉 III型가 A 식(도편 31, 3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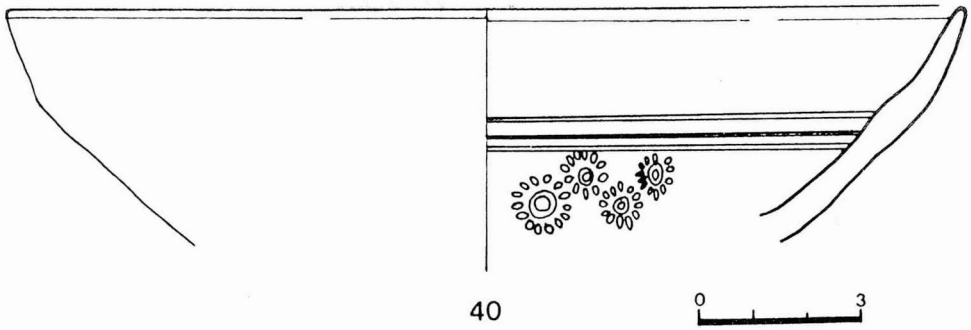
〈그림 18〉 III짝가 B 식(도편 34,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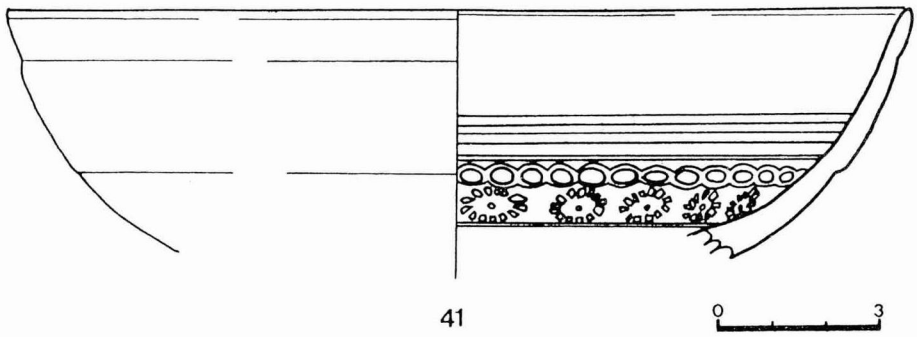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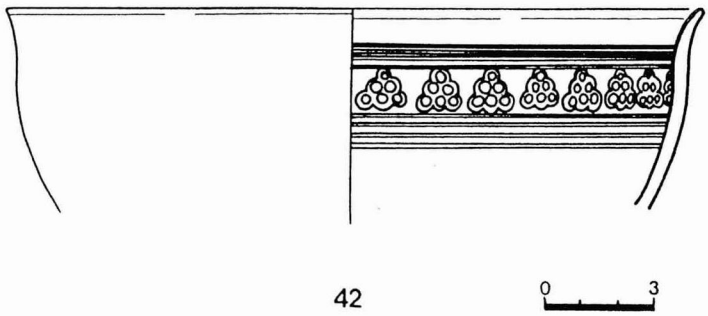


〈그림 19〉 III짤나 A 식(도편 37, 3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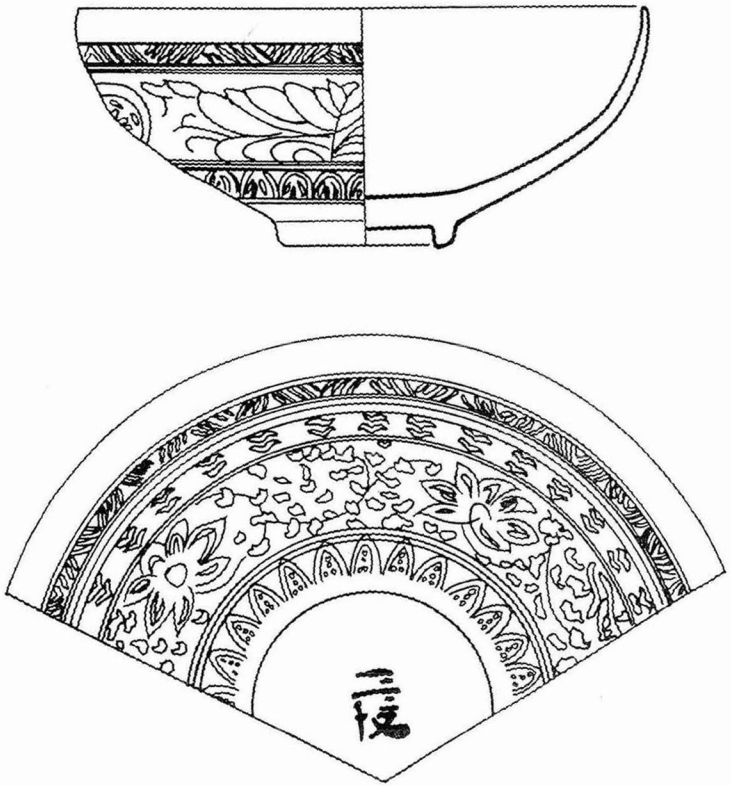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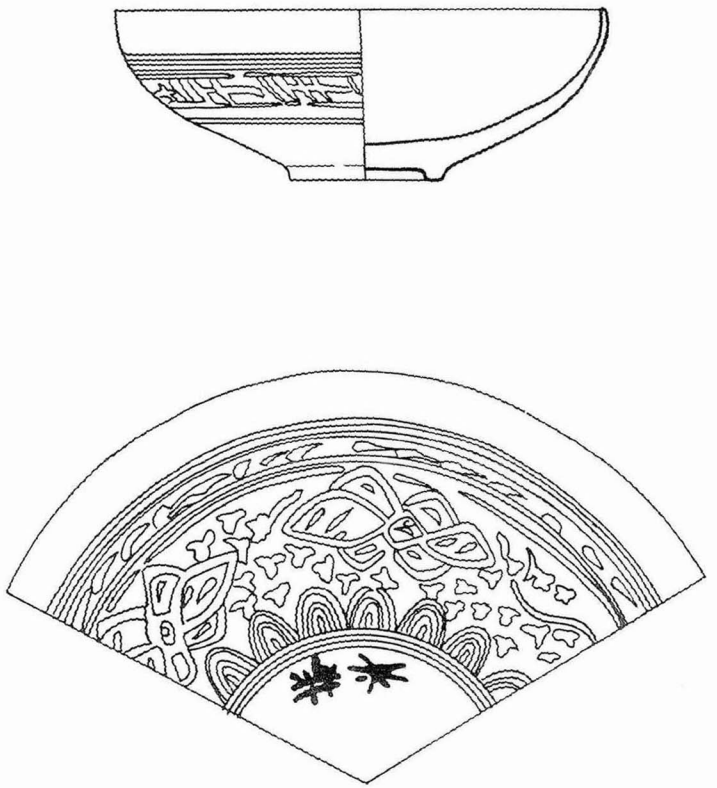
〈그림 20〉 III짤나 B 식(도편 4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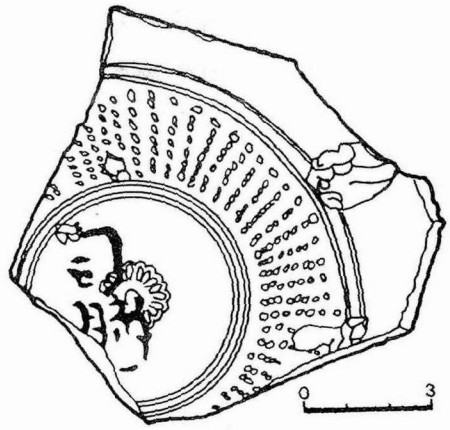
〈그림 21〉 III짤다(도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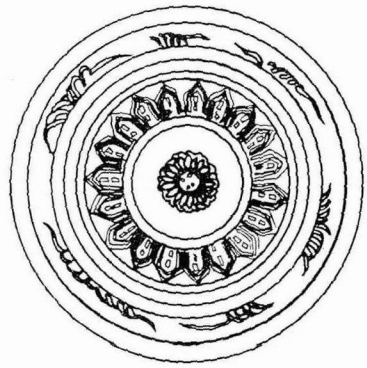
〈그림 22〉 青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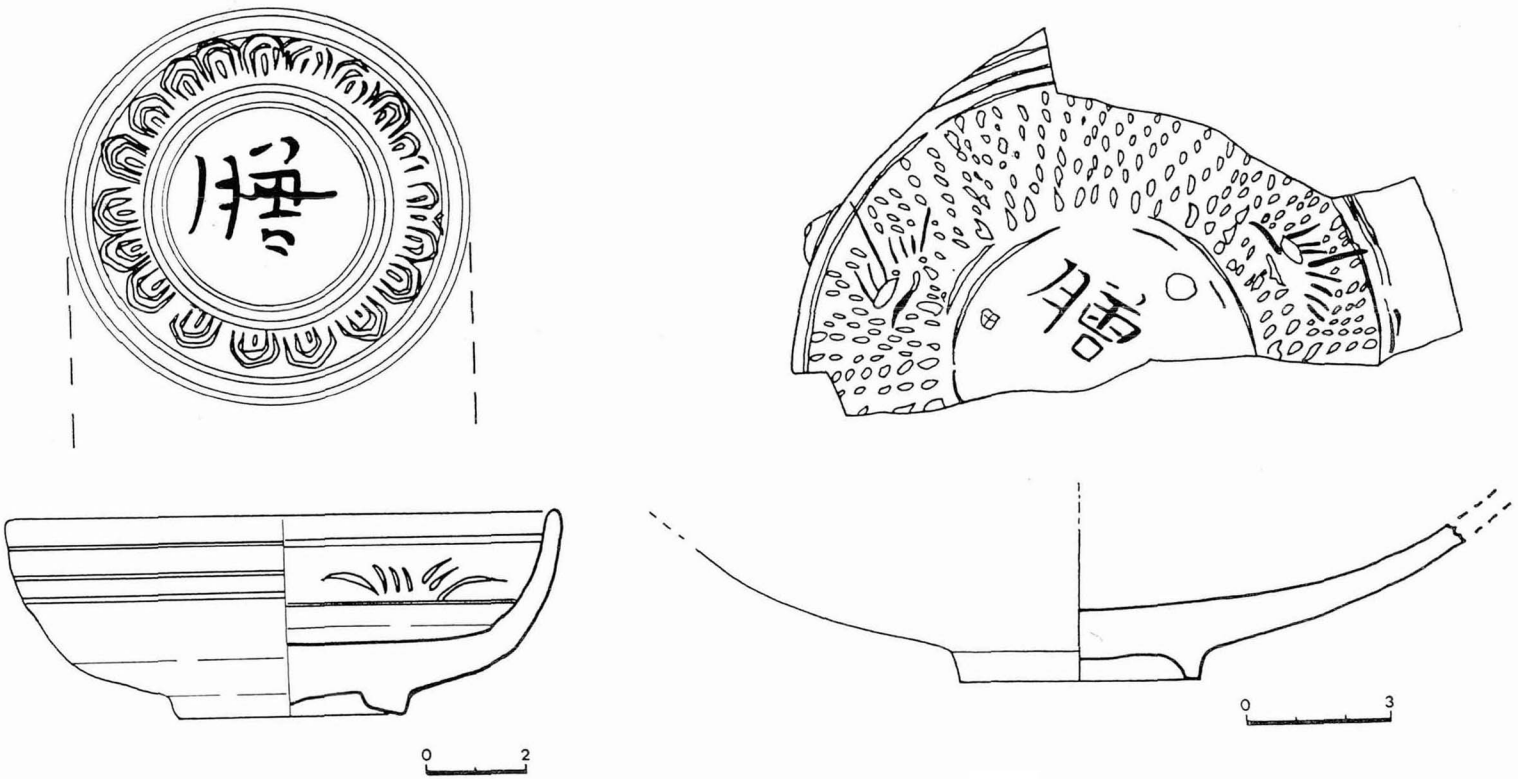
〈그림 23〉 粉青象嵌蓮唐草文恭安銘대접(소재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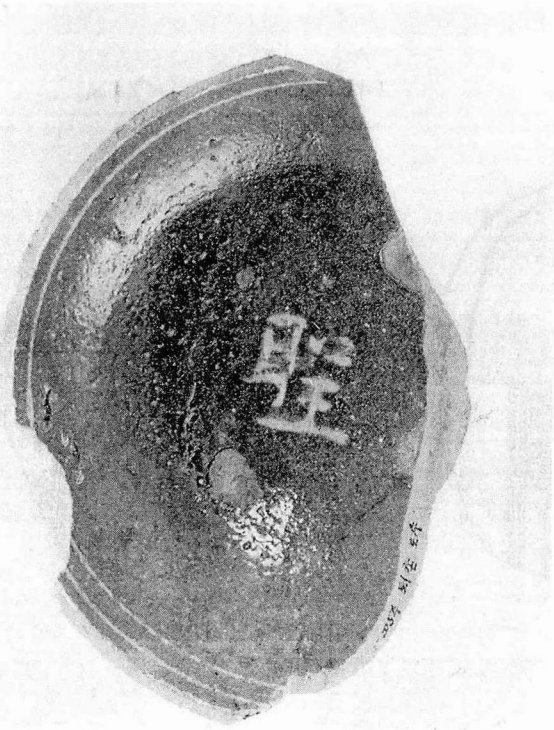
〈그림 24〉 司膳銘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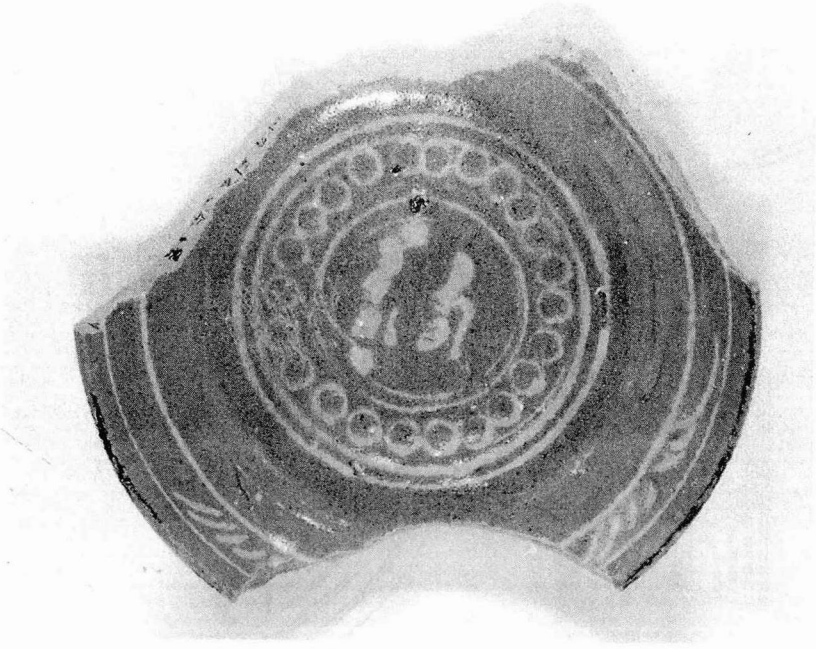
〈그림 26〉 음각문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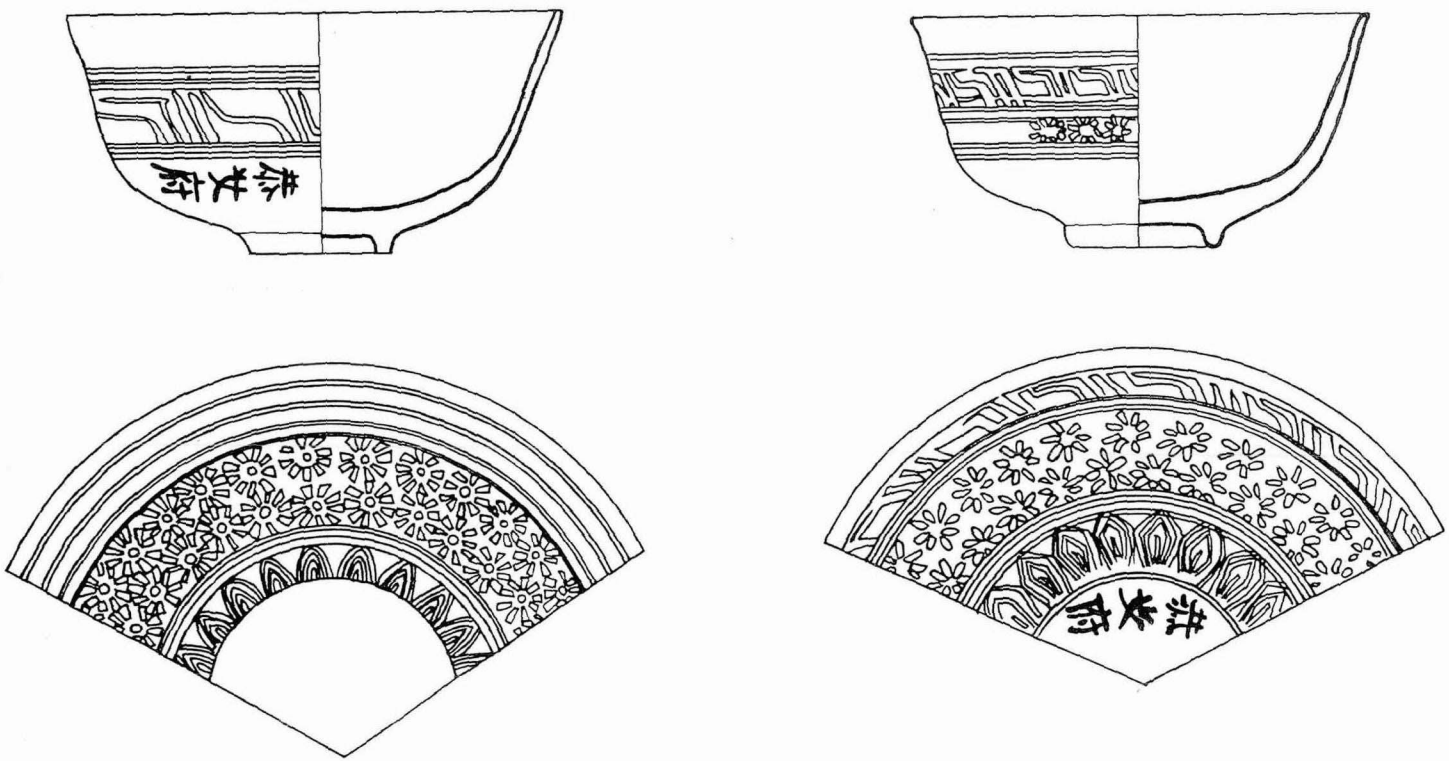
〈그림 25〉 膳銘도편 2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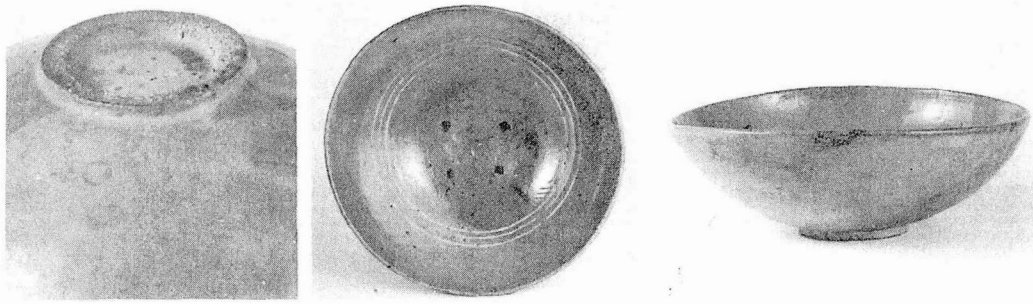
〈그림 27〉 「聖」자 도편, 도수리 출토



〈그림 28〉 「潤」(?)자 도편, 도수리 출토



〈그림 29〉 粉青印花菊花文恭安府銘대접 2점(좌 ;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우 ; 소재미상)



〈그림 30〉 중권문대접, 영전사지 출토

〈그림 31〉 분청상감 초화문 사이호

분청인화 집단연권문 사이호 정소공주묘 출토